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가

강릉 033. 651. 1385
 거제 055. 682. 4950
 경주 054. 772. 8141
 고양 031. 919. 4040
 광명 02. 895. 1966
 광양 061. 762. 0012
 광주 062. 524. 3511
 군산 063. 462. 4491
 김해 055. 332. 6000

나

남양주 031. 577. 7762
 남원 063. 632. 7002
 논산 041. 736. 7393

다

대구 053. 652. 0070
 대전 042. 254. 3035
 동해 033. 531. 3007

마

마산 055. 246. 8746
 목포 061. 242. 1611

바

부산 051. 441. 2221
 부천 032. 668. 9700

사

사천 055. 833. 9981
 서귀포 064. 762. 1400
 서울 02. 3705. 6000
 서천 041. 951. 6400
 성남 031. 701. 2501
 속초 033. 635. 8663
 수원 031. 252. 5111
 순천 061. 744. 7990

아

안동 054. 854. 5482
 안산 031. 483. 6536
 안양 031. 455. 2700
 양산 055. 367. 1144
 여수 061. 654. 2161
 경주 054. 772. 8141
 울산 052. 247. 3520
 원주 033. 742. 6090
 의정부 031. 853. 6332
 익산 063. 857. 8910
 인천 032. 424. 0524

자

전주 063. 224. 5501
 제주 064. 711. 8325
 제천 043. 646. 6009
 조치원 041. 865. 2432
 증평
 진주 055. 753. 6133
 진해 055. 542. 0020

차

창원 055. 283. 9488
 천안 041. 575. 0961
 청주 043. 265. 3700
 춘천 033. 254. 4878
 충주 043. 848. 3240

타

통영 055. 641. 2537

파

파주 031. 945. 5998
 평택 031. 651. 7701
 포항 054. 274. 4444

하

하남 031. 793. 7771

준비회

밀양

한국YWCA 2011.05



누구나 와서 시름 덜어놓고 한 줄기 새 희망을 품는
 그루터기이고 싶습니다.

한국YWCA

05

Vol. 481 / 2011



YWCA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YWCA연합회



표지 류연복

판화가이며 서예가이자 시인인 류연복 선생님은 1980년대 벽화 운동, 민중 목판화 운동의 중심인물이자 우리 산의 아름다움을 담은 진경산수 판화로 유명하다. 2008년 YWCA 독도사랑 캠페인에도 판화엽서로 함께하였으며, 현재 안성에 살면서 작품활동과 함께 환경운동, 공동체운동에 몸담고 있다.

Contents

- 02 • 가던 길 멈춰 서서 | 윌리엄 헨리 데이비스 | 고두현
- 04 • YWCA 현장 속으로
- 06 • 연간기획 _ 청년정의운동 I _ 꿈 꿀 수 있는 권리 | 정린
- 08 • 청년정의운동 II _ 직업이 아닌 꿈과 진로를 찾아서 | 강하자
- 10 • 청년정의운동 III _ 그래도 희망이 있기에 함께 합니다 | 고성혜
- 13 • 되찾은 영성, 울림 _ 정의는 책임이며 사명 | 강교자
- 14 • 줄인 I _ 한국YWCA 창립 89주년 감사예배와 축하잔치
- 18 • 줄인 II _ 제2차 YWCA 정의포럼_돌봄 노동의 사회화
- 20 • 줄인 III _ 제15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 시상식
- 22 • Y에 바치는 연가 _ 사랑을 알려준 사람들 | 주정식
- 24 • 회원 이야기 _ 서로 합하면 큰 힘 | 오은자
- 25 • _ 사랑의 물을 보냅니다, 힘내세요! | 김현희
- 26 • 이슈 따라잡기 _ 한국의 원자력 소비자들이 고민해야 할 숙제 | 진상현
- 28 • 문화공감 _ 엄마 신드롬, 엄마의 행복을 부탁해 | 김지숙
- 30 • 신간소개
- 31 • 제9회 한국여성지도자상 후보 추천 접수
- 33 • Y돌보기 _ 오래된 가족 사진첩 _ 정차현실
- 34 • 세계 속의 한국YWCA _ 세계 경제정의 실천의 요람, 청소년 금융교육
- 36 • 행복한 불편 _ YWCA 생명운동으로서 EM 활용 | 최형선
- 38 • 5월의 YWCA
- 40 • 연합회 소식
- 43 •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한국YWCA 성명서
- 44 • 회원YWCA 소식

201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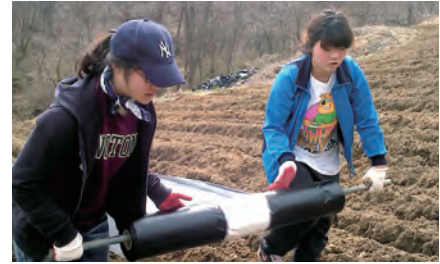
제47권 제4호 통권481호 2011년 5월 1일 발행(등록번호 라-746호) 발행 한국YWCA연합회 편집인 유성희
편집장 차경애 편집위원 김진형·백수경·윤혜원·이경순·이은영 편집 박은실·박경희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1가 1-3 한국YWCA연합회
전화 02-774-0230 팩스 02-774-9724 <http://www.ywca.or.kr> 편집디자인 디자인21(02-3443-4877)
구독신청안내 구독찬조금 1만 원(1년분)을 내시면 덤으로 보내드립니다.
동협 386-17-000052(한국YWCA연합회) 송금 후에는 연합회 사무실로 입금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Y W C A

현장 속으로



01 강릉Y_키즈클럽 기차봉사여행_엄마와 함께 만드는 사랑 나누기



02 청주Y_틴 대학Y 농촌봉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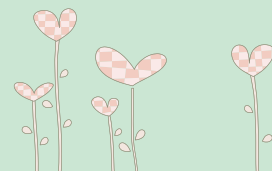
04 부산Y_어린이 농촌체험_초록밭에서의 봄 알츠



03 대구Y_EM 흙공 만들기



05 여수Y_늘푸른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_연합체육대회



06 진주Y_싱크머니 현판식_도동초등학교



07 한국YWCA 창립 89주년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잔치



08 순천Y_Y-틴·대학Y인준식



09 논산Y_이사·위원 연수



10 진주Y_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교육과 선포식_사랑이 꽃피는 청소년 세상 만들기



11 진해Y_애들이 밥먹자 캠페인

꿈 꿀수 있는 권리

● 글 | 정린 연합회 청년운동팀 / 정린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상처받는 아이들

필자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만나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다. 지역과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는 다양한 가족력을 지니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어머니로부터도 버림받은 후 할머니와 함께 사는 아이도 있고, 가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서 몸과 마음에 아픈 상처를 지니고 있는 아이도 있다. 어떤 형태의 가족력이든 마주한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는 듯해서 늘 마음이 아프다.

꿈은 사치가 아니야

아이들을 마주하는 첫 시간은 언제나 서로의 기 싸움으로 시작된다.
“내 마음대로 하게 두세

요.”

“나는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나 하고 가세요.”
아이들은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태도로 일관한다. 의자를 뒤로 젖히고 흔들 흔들거리며 사장 자세를 하고 있는 아이, 턱을 비스듬히 괴고 드러누운 듯 책상에 기대고 앉은 아이, 다리를 떨면서 껌을 씹고 있는 아이 등 세상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듯 앉아 있다. 학교나 세상에 대해서 희망도 없고 믿음도 없음을 금방 알아챌 수 있다.

이런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심어준다는 것은 쉽지 않다. 가족으로부터 얻게 된 버려짐과 배반이 아이들을 꿈꾸게 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기에 필자는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본다.

“○○야! 꿈이 있어? 있으면 우리랑 같이 나눠 볼까?”
“죽는 거요! 그냥 죽고 싶어요. 스무 살이 되면 죽을

거예요.”

허리를 뒤로 젖히고 당당하게 말한다. 죽음이라는 단어에 아무런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없다. 그저 게임 종류의 이름을 말하듯 거침없이 내뱉는다. 하늘이 무너지듯 쿵하고 가슴이 내려앉지만 이내 정신을 차려서 되묻는다.

“그래? 그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넌 뭘 시도해봤어?”

“이것저것 해봤어요.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놀라듯 움찔하다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을 의식한 듯 큰 목소리로 대답한다.

“그렇다면 자살시도를 해봤다는 건데 어떤 방법을 써봤는지 궁금하네. 혹시 방법을 모른다면 선생님이 가르쳐 줄까? 나도 어릴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

방을 가득 메운 아이들은 시끌벅적 어수선하게 수업에 임하다가 어느새 숨죽이면서 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삶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공부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꿈꾸라고 말한다. 하지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친구와 선생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꿈꾸는 일조차 쉽지 않은 버거운 일이 된다.


흔히, 사람들은 성공이나 행복 여부를 말할 때 물질적 소유가 척도가 된다. 하지만 길을 잃고 헤매는 아이들을 만날 때는 성공이나, 행복에 대해서 말을 꺼내기조차 힘들다. 이들에게는 낯선 거리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벅찬 일이기 때문이다. 혹여 우리 주변에 이렇듯 길을 잃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면 어떨까?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지만 부모와의 관계와 사랑으로부터 길을 잃고 헤매는 아이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왕따가 되어 홀로 세상과 맞서고 있는 아이들,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괴감에 빠져서 스스로의 존재감을 상실하고 있는 아이들을 좀 더 따뜻한 눈으로 살펴보자. 죽고 싶다는 말을 꿈이라고, 희망이라고 말하는 아이들에게 ‘꿈꾸자!’라는 말은 지극히 사치스러운 말이다.

스스로 심는 나만의 꿈

이들에게는 꿈꾸자는 말 이전에 ‘관심과 사랑’을 먼저 줘야 한다. 관심과 사랑을 통해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 생겨진 후라면 그때에는 ‘씨앗을 심는 단계’가 필요하다. 2 단계가 바로 ‘꿈꾸게 만드는 것’이다. 꿈꿀 수 있는 것도 아주 큰 선물이자 능력이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감사하면서 아이들에게 작은 씨앗을 심어주자. 흠씨가 바람에 날려 더 많은 꽃을 피워줄 수 있도록 그저 묵묵히 꿈을 심는 일에 성의를 다해보자.

필자는 오늘도 좌절하며 희망을 잃고 침묵하는 아이를 만난다. 그 아이에게 꿈을 심어주려고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사랑과 관심을 쏟아낸다. 진심은 통할 거라는 믿음 하나로. 



직업이 아닌 꿈과 진로를 찾아서

● 글 | 강하자 서귀포YWCA 청소년문화의집 관장



길 잃은 아이들

꿈이 있는 사람은 아름답다. 그 꿈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으니 말이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꿈이

무어나고 물으면 꿈이 아닌 직업을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그 또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거나 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가지게 된 꿈이 대부분이다. 돈을 잘 벌거나 안정된 장래가 보장되는 직장 말이다. 이러한 청소년에게 정말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우물쭈물 거리거나 빨리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주위의 채찍에 맞춰 달리는 아이들이 안 쓰럽다.

작아져만 가는 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다양하면서도 거창한 꿈이 쏟아져 나온다. 대통령, 과학자,

의사 등. 하지만, 중고등학생들에게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물어보면 공무원, 교사가 대부분이다. 어린 시절의 다양하고 대답했던 꿈들. 왜 커가면서 꿈은 작아지는 걸까? 꿈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누가 내 꿈을 우습게 보면 어찌지’라는 부끄러움, 다른 이와 비교를 통한 불안감, 꿈과 현실과의 차이 인식.....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 삶의 주인공 되는 연습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진 이 시대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은 청소년기에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청소년을 한쪽 방향으로만 몰아가고 있다. 부모님의 강요, 주변 친구들의 분위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걸 찾지 못하고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탐색기이다. 수많은 경험과 많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진로를 선택하는 데에는 자신에게 있는 능력뿐 아니라 관심 분야 그리고 성품 등 나와 나를 둘러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의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맞는 일을 선택하고 있는가? 먼저,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건강한 자아 형성을 통하여 자신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


꿈을 찾는 아이들

한국 청소년이 다양한 이웃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 YWCA운동의 많은 부분이 지도력 향상에 있으며, 특히 청소년 대상인 Y-틴 활동에서는 지도력훈련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귀포Y에서도 Y-틴 활동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며 자라나는 세대의 리더를 기르는 일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와 Y-틴 활동,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리더십을 기르고 다른 이들과 협력하는 법을 배워나가며, 그 안에서 자신의 꿈을 찾아 나서는 아이들을 본다.

서귀포YWCA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직업관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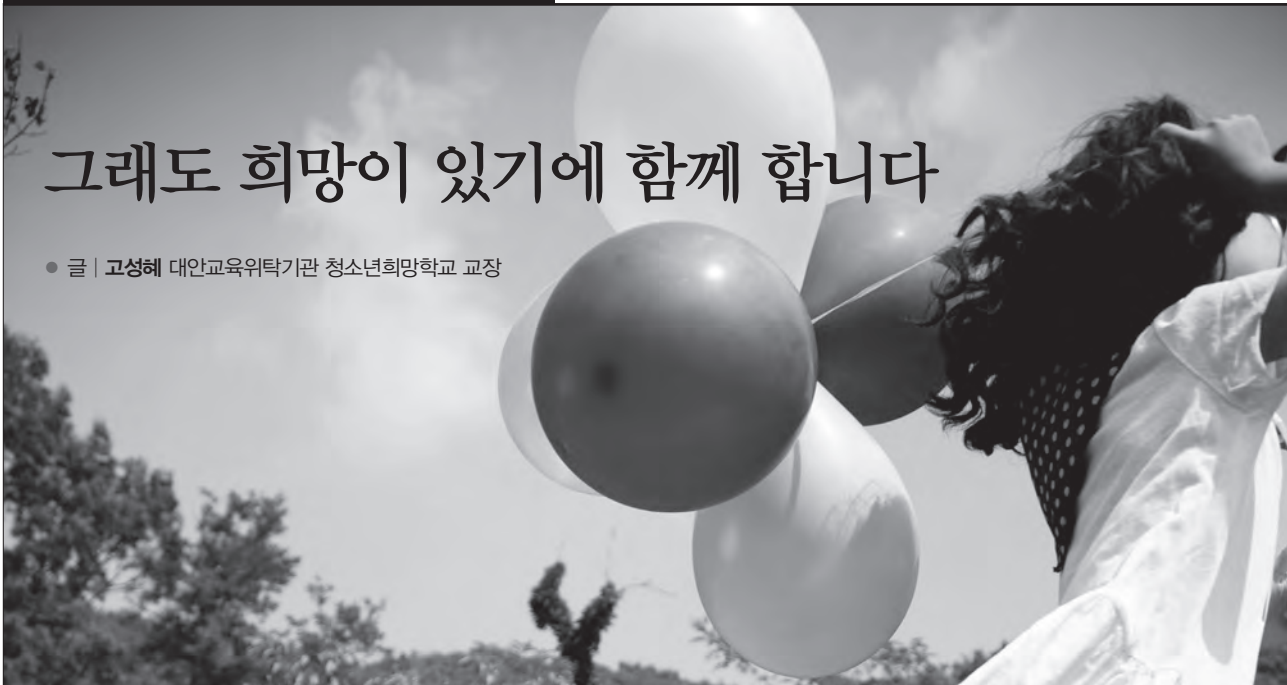
아닌 자기를 실현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꿈을 찾는 아이들(꿈찾아)'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다. 직업탐색 프로그램의 제목에 '꿈'을 넣은 이유는 원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진로탐색을 통해 자신의 적성, 흥미, 성격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 체험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이 가고 싶은 체험현장을 정하였고 제주항공, 한라의료원, 다음글로벌미디어센터, KBS제주, 제주대학교 등 지역의 기업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어 좋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각 기업을 찾아 그곳에서 일하는 다양한 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다.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은 연예인과 카메라맨, PD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나 다양한 직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는데 다양한 직종에 대해 더 알아보고 나한테 맞는 일을 찾아야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고 싶은 일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꿈을 이루어 나가려는 청소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큰 보람을 느꼈다.

21세기는 개인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시대이다. 물건도 소품종 다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이 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청소년은 너무나 획일적으로 키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체험과 다양한 활동이 청소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변과 이웃의 삶에 더 깊은 관심으로 다가간다면, 다채로운 삶의 현장에 발을 들여놓고 체험할 수 있다면 청소년들이 자신이 좋아하고 자기다움을 확인하고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자기만의 일을 성큼성큼 찾아 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래도 희망이 있기에 함께 합니다

● 글 | 고성혜 대안교육위탁기관 청소년희망학교 교장



학교에서 내몰리는 아이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신
나고 즐겁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알고
꿈을 실천해나가기 위한 과

정을 밟을 수 있다면, 청소년들에게 학교만큼 좋은 곳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학교가 싫다고 뛰쳐나오거나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해 내몰리는 아이들, 즉 학업중단의 위험에 처한 학생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학업에 대한 흥미를 상실한 학생들에게 미래는 막연하고, 자포자기적인 태도로 단지 현재를 즐긴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고, 목표달성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저것 다 귀찮고 그저 시간 때우기로, 친구 만나는 맛에 학교에 가지만, 학교에서의 자기 위치는 매우 초라하다.

수업시간에 알아들을 만한 내용이 없어 의자에 앉아 있기도 귀찮고, 무료한 시간의 돌파구로 공연히 분위기 흐리는 말을 툭툭 내뱉으면서 그저 우스운 아이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때로는 자신의 존재감을 찾기 위해 학생들이나 선생님들과 힘겨루기를 한다. 입만 열면 욕이고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집요하게 괴롭히고 아무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며, 당구장, 노래방, PC방을 전전하면서 노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이들 앞에 흥미롭고 새로운 성인의 세계가 펼쳐지는 순간, 견잡을 수 없이 이에 빠져들게 된다. 그것이 위험하고 금지된 행동이고 법의 처벌이 따른다 해도 개의치 않으며, 나름 스틸도 느끼고 시간도 빨리 지나가고, 걱정거리도 잊을 수 있고, 힘도 과시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도 확 풀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는 항상 이유가 있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주위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겉으로는 여러 보이지만 내부에는 어

른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분노를 안고 있는 아이들,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곧 옳은 것이고, 싫어하는 것이 나쁘다는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여기는 아이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아무런 대안 없이 이들이 방치된다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막대한 인적 손실이라는 점이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중도탈락 위협에 처한 학생들 중에는 학업부진과 학업에 대한 무관심 또는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고, 문제행동을 습관화하고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에서 소원함이나 심리적 상처가 깊은 경우도 있고, 정신과적인 전문치료를 요할 만큼 마음이 아프고 정서적으로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학생

들도 있다.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가가기 쉽지가 않고 때로는 조심스럽고, 보다 전문적인 접근을 요한다.

우리는 이렇게 아프고 가엾은 학생들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마음으로 현장에 뛰어들다가 제풀에 꺾여 지쳐버린 사람도 보았고 오히려 상처받은 어른도 보았지만,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만한 열정 있는 사람이 점차 드물어진다는 점, 교사 개인의 희생으로 이 아이들을 품는 것도 불가능해지면서 이러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버릴 수 있는 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스럽다.


눈에 힘이 팍 들어가 어른들이 보아도 섬뜩함을 느끼게 되는 아이들, 에너지가 바다야 나서 학교에 오는 것조차 힘겨운 무기력한 아이들,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고 인내심





도 부족하고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나태함을 보이며 때로는 무례하고 때로는 투박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아이들, 매사에 불만인 듯 구시렁거리면서도 할 것은 하고 따라오는 아이들이지만, 우리의 기다림과 수용 속에서 서서히 달라지는 아이들을 본다. 중도탈락 위험이 있는 학생들도 어느 학생들처럼 남들보다 무언가 잘 하고 싶어 하고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싶으며 자신의 장점을 찾고 싶어 한다. 물론 기존의 학교에서는 이들을 수용하려 들지 않고 이 학생들도 기존의 학교를 거부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학생들이 '학교'와 '교육'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그들 자신이 꿈꾸는 '학교'가 아니고, '배움'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은 공부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하여 자신감이나 자신의 존재감을 찾고, 새로운

도전에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원하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지니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을 수 있는 환경을 필요로 한다. 학생과 교사와의 소통과 배려, 그리고 가능성이 열린 문화 속에서 아이들은 성취감을 느끼고, 작지만 자신의 목표를 찾아가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표정과 언어적 표현 또한 많이 나아지며, 자신의 미래를 얘기하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늘어감을 본다. 따라서 현행 교육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일지라도 사회의 위험환경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그들의 학습적 욕구를 수렴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잠재된 가능성을 찾고 미래에 대해 희망적인 사고를 하고 따뜻하고 의리 있는 품성을 지닌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한 교육적 기반조성과 체계화를 기대해본다. 

정의는 책임이며 사명입니다

이 세대를 위협하는 두려움과 위협에서 우리를 구해주며, 이 세상에서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줄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명, 곧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문화를 살리는 문화’로 바꾸며, 죽음의 증상들로 가득한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아파하면서 생명의 바람으로 세상을 살리기 원하는 우리 YWCA 회원들에게 매카트니 감독의 선포는 큰 도전을 줍니다. 특히 2011년을 ‘정의의 해’로 정하고 정의운동을 펼쳐가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정의에 대한 가르침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불의’라는 구체적인 죄를 제시해 줌으로써 정의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도와줍니다.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정의’를 정의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불의’라는 구체적인 죄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발적인 불의나 천재지변 때문에 받는 고통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된 학대와 압제로 인한 고통을 받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불의입니다. 불의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거나 빼앗는 행위라면, 정의는 모든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며 회복시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불의의 피해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불의’로 고통 받는 자들을 사랑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바랐을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 해주라고 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8

그리스도인에게 정의는 정의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불의를 미워하며 불의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처럼 저들과 함께 하며,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정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책임이며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불의한 세상에 정의의 빛을 비추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정의의 빛을 비추라는 사역을 명령하셨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말씀의 실천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삶입니다. 기독교여성공동체인 YWCA회원들은 이런 신앙적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부여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 아침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정의를 행하라!’ 는 하나님 주신 소명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영적 힘이 아니고는 정의를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그들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하며 정의를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4월 YWCA 월례아침기도회, 강교자 연합회 회장 말씀> 



생명을 살리는 여성들의 여든아홉 번째 행진

올해 4월 20일은 한국YWCA가 이 땅에 세워진 지 여든아홉 해가 되는 날이다. 창립기념일을 맞아 한국YWCA연합회는 감사예배를 드리고 4월 26일 축하잔치를 열었다. 예배에서 주선애 명예연합위원은 'YWCA 창립 89주년을 기념하며 감사하며'라는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기주의, 안일함과 무관심 속에 파묻혀 있는 우리를 반성하며 정의를 세울 힘을 되찾고, 사랑을 나눠줄 힘을 회복하자고 호소하였다. 또한 한국YWCA 초창기에 가졌던 소명의식과 영성을 통해 십자가를 질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며 미래사회에서 YWCA의 존재양식은 합당한 것인지 이번 창립기념일을 통해 YWCA의 중흥과 당위성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핍박과 고통 속 암울한 시기에 우리 민족을 십자가 사랑으로 품는 YWCA를 건설하는 일에 매진하였던 선배들. 지난 89년을 큰 허물없이 YWCA가 축복 속에 사회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던 것은 선배들의 노고 덕분이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역사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부활주일을 지나고 4월 26일에 열린 창립 89주년 축하잔치는 정희경 전 후원회 이사장의 개회기도를 시작으로 강교자 연합회 회장, 송혜령 Y-틴 회원,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의 인사말, 한국YWCA 89주년을 '아름다운 선물이자 은총'인 'beautiful gift'로 재해석한 영상을 보며 창립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감회를 나누었다. 특히 YWCA 인터넷 방송국인 YWBS의 아나운서들이 돌아가며 사회를 보고, 객석에서 YWCA에 거는 소망과 기대에 대한 즉석 인터뷰도 진행하는 등 선배와 후배, 옛것과 새것, 전통과 현재가 어우러지는 조화와 하나됨의 가슴 벅찬 자리였다.

전·현직 연합회 실행위원, 위원, 실무자, 전국 53개 회원Y 회장단과 미래지도자로 초청받아 오신 손님들이 생명, 사랑, 정의, 열정, 평화, 청년, 여성을 상징하는 빨주노초파남보 모두 일곱 가지 빛깔의 순서지와 리본으로 묶은 좌석 모듈별로



▶ 세상과 나눌 축복의 풍선을 손에 손에 들고



▶ 인물현수막 앞에서 기념촬영하는 정동신 실행위원, 김현자 명예연합위원, 한미미 실행위원



▶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선포해주신 주선애 명예연합위원(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 개회기도에 앞서 인사하는 정희경 전 이사장

참석자들이 자리하였다.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미리 모아진 'YWCA가 존재하는 89가지 이유'는 행사장인 서울YWCA 강당 입구 벽면에 장식되었고, 색색의 풍선으로 이어진 축하잔치는 설렘과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 잔치 시작 전 선후배님들을 보고픈 마음이 앞서 한 걸음에 달려온 YWCA 회원들은 따뜻한 포옹을 나누며 새로운 역사요 추억을 쌓고자 기념촬영에 행복한 모습이었다.

환영과 사랑, 축복과 결단의 인사가 끝나고 "YWCA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요, 세상 모두와 나누어야 할 축복"이라는 백인화, 이예은 YWBS 아나운서의 멘트와 함께 200여 개의 풍선을 날리며 모두를 축복하였다. 1부 순서의 마지막은 1970년대 서울YWCA의 노래운동인 '청개구리'에서 같이 활동한 서유석 씨의 작음 음악회로 진행되었다. '아름다운 사람' 등 히트곡을 비롯해 '겸손과 지혜와 실패를 주신, 마음 속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도에 관한 자기고백적인 노래까지 사랑과 감사와 나눔을 담은 노래와 이야기가 많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다.

이어 신희은 연합회 부회장이 진행한 2부에서는 생일 축하 케이크 나누기, 김재화 명예연합위원의 축시 '한국YWCA 89년을 돌아보며(축시 전문은 4월호 참조)' 낭송, 참석자 소개가 이어졌다. 2부는 '끈 묶기 퍼포먼스'를 하며 각기 다른 색깔을 가졌으나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축복의 발걸음을 모두가 함께 내딛는 마음으로 회가를 부르면서 감동적인 순간을 마무리하였다. 정성껏 준비한 식사의 자리에서 삼삼오오 모여 89년의 YWCA 이야기는 그치지 않고 이어졌다.

“함께 묶은 이 끈은 젊은 여성인 우리가
 생명과 사랑, 열정을 가지고
 정의와 평화운동을 공동체로
 이루어나가겠다는 다짐이며 한국YWCA
 90년, 100년을 향한 다짐입니다.”

※개회기도와 환영, 사랑, 축복을 담은 인사말을 차례로 실어 참석하지 못한 모든 YWCA 회원들과 그날의 뜨거운 감동을 나누고자 한다.

한국YWCA 창립 89주년 개회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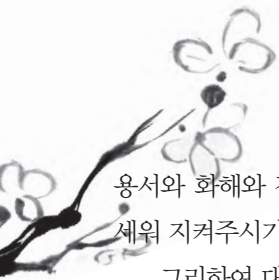
정희경 전 후원회 이사장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인간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89년 전에 이 땅에 젊은 여성들의 신앙공동체이며 이 나라의 여성운동의 효시가 된 YWCA의 씨앗을 심어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생명이 새 움을 트고 힘차게 성장하는 봄철, 대한민국에 YWCA의 씨앗을 뿌리셔서 이제 한 세기를 바라보며 뻗어나가는 거목이 되게 보살피 주시고 채찍질하며 타 이르시며 힘주시고 지혜 허락하신 놀라운 당신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예수님 부활의 계절에 창립기념축하모임을 가지게 되어 우리의 부활 신앙을 더욱 굳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모자라는 능력으로 또한 무지한 미련함과 게으름으로 많은 허물을 저질렀습니다. 때로는 작은 성취에도 교만하였고,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도 경솔하고 천박하게 행동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 창립기념의 날에 크게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시작은 미미하였사오나 그 끝이 창대하게 되었다는 믿음으로 해서 때론 허황되게 일을 처리했던 일도 기억하오니 불쌍히 여기시며, 허물을 덮어 주시고 용서하시며 더더욱 당신 앞에 그리고 국가와 민족의 역사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YWCA 회원들로 하여금 시대의 징조를 똑바로 관찰하고 통찰력 있게 받아들여, 지향 없는 시대의 조류인 시류에 영합하여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변하고 요동치는 변화의 거친 흐름 속에서도 변하여서 든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신 정직과 정의, 사랑과 평화,



용서와 화해와 같은 덕목에서 떠나지 않게 저희들을 바로 세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대한의 YWCA가 세계의 여러 YWCA 가운데서도 진실로 책임 있는 정의감과, 거짓 없는 정직과 사랑의 봉사를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입으로 떠드는 평화가 아니라 진리와 정의에서 행동하는 평화가 저희들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불행하게도 우리 민족의 삶에 늘 먹구름처럼 드리워져 있는 남북한의 갈등과 대결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수십년을 용서와 화해를 입버릇처럼 외쳐왔으나 결실을 얻지 못한 저희가 사랑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소치인 줄 알고 회개하오니 하나님이지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YWCA로 하여금 진정 남북화해의 역군 되게 써주시옵기를 기도하오니 우리를 당신의 그릇으로 빚어 써주시옵소서.

이제 대한의 YWCA를 백년 향하여 더욱더 겸손히 더욱더 부지런히 사랑하며 일하는 회원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조금씩 더 예수 닮아가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89년을 지켜 길러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환영의 인사

강교자 한국YWCA연합회 회장

환영합니다.

생명의 바람으로 세상을 살리는 여성들의 여든아홉 번째 행진. 우리들의 잔치자리에 참석해주신 YWCA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9년 전 이 땅에 세워진 YWCA는 이 땅에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팔이었습니다. 억압과 차별 속에서 존중받지 못하던 여성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이었고 불의한 힘에 눌려 고통당하는 자에게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발이었습니다. 소외된 모든 이를 품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이었으며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을 외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나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로 YWCA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축복의 선물인 YWCA를 가꾸고 지키기 위하여 땀은 무릎, 뜨거운 눈물로 땀흘려 헌신하신 선배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아흔 살을 바라보는 YWCA가 처음의 꿈을 잃지 않고 그 꿈의 지경을 더 넓혀가는 언제나 젊고 활력 있는 공동체로 성장해 갈 것을 확신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독수리하늘 향해 올라가는 새 힘을 YWCA 가족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YWCA는 창립 100주년을 바라보며 힘찬 행진을 계속할 것입니다. 여든아홉 살 생일을 축하하는 오늘 이 자리는 백 살 축하잔치의 시작인 아흔 살 행사의 전야제 같은 의미입니다. 감사와 희망, 새로운 꿈과 헌신의 다짐이 뜨거운 열기로 솟구치는 행복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행복한 만남, 행복한 나눔, 행복한 다짐 그리고 행복한 격려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랑의 인사

송혜령 Y-틴 회원

우리들의 잔치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사랑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Y-틴 회원으로 Y를 만났습니다. Y-틴 회원으로 많은 선배님들도 만났습니다. Y-틴 회원으로 Y의 역사도 만났습니다.



▶ 환영의 인사를 전하는 강교자 회장. 가운데는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송혜령 Y-틴 회원, 축복의 인사를 전하는 유성희 사무총장(왼쪽부터).

작은 봉사활동에서 시작했지만 Y는 알고 보면 저에겐 큰 산이요 큰 바다였습니다. 모두의 잠재력을 키워주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알게 해주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린 저희들에게도 세상의 참된 주인이 되어 큰일을 하라고 가르쳐주는 배움의 터전이었습니다. 주위를 살피게 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세상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게 하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Y의 회원이 되어 사람과 세상과 역사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 이렇게 좋은 YWCA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YWCA가 오늘을 맞이할 수 있게 89주년을 이어주신 선배님들을 사랑합니다. 저와 함께 활동했고 앞으로의 역사를 이어갈 Y-틴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저와 Y의 미래를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고 이어서 세상 안에 참된 사랑을 이룰 저와 Y의 미래를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젊은 회원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랑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의 인사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생명을 살리는 여성들의 여든아홉 번째 행진, 우리들의 잔치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Y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은 만남입니다. 역사는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YWCA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신 Y의 역사는 굽이굽이 모든 시대마다 소명과 비전을 가진 우리의 선배들의 귀한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전국의 조직으로 동과 서가 만났고, 이미 반세기 전에 북한의 자매들과의 만남도 이루어주셨습니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전세계의 회원들과 만났습니다. 선배와 후배가 만나 같은 정신을 이어왔습니다. 사람과 자연, 생산과 소비, 여성과 남성, 아이와 어른들의 모든 만남을 Y는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Y에서 이어갈 축복은 미래를 여는 생명의 축제입니다. 불평등한 구조에서 아픔을 겪는 이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부정의한 사회에서 소외를 당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생명으로, 정의로운 평화가 이루어질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YWCA는 모두를 위한 축복입니다. 이제까지처럼 앞으로도 역사를 이어갈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축제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여성경제정의운동 : 돌봄 노동의 사회화

● 글 | 편집실



▶ 여성노동권과 복지에 대해 발제하는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3월에 이어 4월 28일 연합회 강당에서 제2차 YWCA 정의포럼이 열렸다. 첫 번째 포럼이 YWCA 정의운동이 무엇인지, 왜 정의운동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선포와 다짐이었다면 두 번째 포럼부터는 정의운동 영역별 주제를 심도 있게 접근해서 활발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주제로 여성경제정의운동을 다룬 제2차 포럼에서는 ‘여성 노동권과 복지(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복지 관점에서 본 여성 돌봄 노동의 사회화(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라는 발제로 시작해 회원YWCA 돌봄 노동 관련 실무자들의 질의응답과 실제 현장에서 펼칠 운동의 방식을 모색해보는 워크숍으로 마무리되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아프리카 TV를 통한 인터넷 생중계 중 장충동 분도회관에서 신입 실무자교육에 참여하는 실무자와 직접 전화연결을 통해 질문을 받고 발제자들이 대답을 하는 시간을 마련해 현장의 소리를 담은 소통의 시간이 되었다.

진정한 복지국가는 노동의 사각지대, 주변부를 줄이고 중심부와 결합해서 하나의 단일한 시장으로 만들어 ‘좋은 노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한 은수미 박사는 YWCA의 돌봄 서비스는 단순히 일자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

각지대에 대한 정책을 넘으로써 지역을 살리고 여성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데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헌신과 능력, 영성을 결합한 실무자들이 Y에 많은 만큼 다른 기관에 비해 더 큰 비전이 있다고 밝혔다. ‘돌봄 노동의 사회화’는 한 마디로 사적 영역에서 무급으로 이뤄지던 노동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 가정영역의 성평등이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장지연 박사는 말했다. 장지연 박사는 힘이 들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회서비스의 공공화’ 곧 ‘돌봄 노동의 사회화’라며 우리가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라고 결론을 맺었다.

질의응답시간에는 노동시장이 커지면서 구인자와 구직자 요구사항도 커짐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어떤 평가기준이 필요한지, 차별화된 YWCA 돌봄 서비스 전략은 무엇인지 등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이에 대해 서비스 표준화, 서비스 질 향상, 직무관련 자격인증, 국가의 책임 확대 등 실제적인 대안이 제시되어 앞으로 돌봄 노동에서 YWCA가 펼칠 운동과 목소리에 큰 의미와 무게가 실리는 시간이 되었다.



▶ 복지 관점에서 여성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강조한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워크숍 결과 발표하는 대구Y 박 선 사무총장

YWCA가 모두를 위한 정의와 사회서비스를 실현하는 주체가 되기를

● 글 | 김태순 청주YWCA 부장

제2차 정의포럼이 '여성경제정의운동 - 돌봄 노동의 사회화'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한국YWCA와 전국의 55개 회원Y들이 여성운동체로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여성 직업교육 및 훈련, 구인구직알선 활동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향후 전망에 따른 YWCA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특히 '여성노동권과 복지', '복지의 관점에서 본 여성 돌봄 노동의 사회화'에 관해 논의하면서 현장에서 돌보미들과 함께 하는 실무자로서 나의 모습, 전국의 회원Y 실무자들의 모습, 그리고 Y와 함께 하는 수많은 돌보미들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했다. 현장에서 돌보미 회원들과 함께 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더 나은 교육과 더 많은 일자리,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Y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는 여성들도, 지금 일하고 있는 여성들도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매일매일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느라 시간가는 줄 모르는 실무자들까지.

돌보미 활동으로 제2의 인생을 꿈꾸거나 부족한 가정경제를 보충하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Y를 믿고 Y라는 울타리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전문직업인으로 열심히 새 출발하는 수많은

돌보미 회원들.

이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를 둘러싼 노동시장 상황과 정책, 제도는 우리 모두를 주변부보다 나쁜 일자리로 내몰아 저임금의 근로빈곤자로 만든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그동안 YWCA가 여성 돌봄 노동의 역사를 통해 일구었던 모든 저력을 다시 집중하여 모두를 위한 '정의와 사회서비스(Justice Welfare) 모델'을 만들고 정부에 제안함으로써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앞당겨야 한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인정받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노동정책과 제도를 바꾸고 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여성운동체이자 시민운동체인 YWCA가 활발한 주창활동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정의포럼을 통해 대안이 있음을 알았기에 우리가 비전과 혁신과 의지를 가지고 행동한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 실현 가능하리라 믿는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가는 YWCA가 아닌가! 



▶ 제15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 시상식_수상한 제작진과 심사위원들



congratulations !

“YWCA 청개구리가 ‘세시봉’ 원조” :

‘세시봉 콘서트(MBC)’,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공감과 소통으로 대상 수상

1996년부터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을 제정하여 올해로 15회째 시상식을 갖게 된 한국YWCA는 그동안 이 행사를 통해 시청자에게는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고, 방송제작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격려하고자 노력해왔다. 올해도 생명사랑공동체정신이라는 YWCA 운동 이념과 철학을 담은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 한국YWCA연합회 89주년 창립기념일인 4월 20일 오전 11시에 ‘제15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 시상식을 열었다.

특히 올해는 ‘청년정의운동’의 가치를 담은 청년 부문을 처음으로 신설해 남한의 총각엄마와 북에서 온 7명의 소년들이 한 가족이 되어 겪는 적응과 성장기를 경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멜로다큐 가족-총각엄마와 7형제’의 대한민국 전국여행(OBS 경인TV)을 첫 수상작으로 뽑았다.

“상을 많이 받는데 YWCA에서 받는 상이 제일 감회가 깊습니다. 사실 세시봉 분들의 효시는 ‘YWCA 청개구리’였습니다. ‘세시봉 사람들’ 2탄으로 ‘청개구리 사람들’을 기획



▶ 대상 수상소감 말하며 속스러워 하는 신정수 세시봉 PD

“상을 많이 받는데 YWCA에서 받는 상이 제일 감회가 깊습니다. 사실 세시봉 분들의 효시는 ‘YWCA 청개구리’였습니다.”



부문	프로그램 명	방송사
대상	설 특집 세시봉 콘서트	MBC
여성_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KBS-2TV
여성_시사교양	휴먼다큐 그날 -다섯 살 소녀 지현이, 아빠 처음 만나는 날	MBC
청년	멜로다큐 가족 -종각엄마와 7형제의 대한민국 전국여행	OBS
환경	환경스페셜 : 디지털 시대의 그림자, 전자 쓰레기	KBS부산
평화	다문화 드라마 : 마주보고 웃어	EBS
특별상	TV동물농장 : 당신이 입는 모피의 불편한 진실	SBS



▶ 대상 수상소감에 활짝 웃는 제작진들


하려 했는데 프로그램을 옮기게 되어 아쉽습니다.”

가족과 세대를 넘나드는 소통을 가져왔으며 아름다운 화음으로 공동체문화와 우정의 소중함을 조명함으로써 감동을 준 ‘설 특집 세시봉 콘서트(MBC)’를 연출한 신정수 PD의 수상소감에 제작진들 비롯한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계급과 성 차별 속 조선사회를 여성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며 당당한 지도자로서 거듭나는 과정을 진지하고 참신한 시각으로 그려내 주목받았던 ‘성균관스캔들(KBS)’이 여성 드라마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으며, 김원석 PD는 수상소감을 통해 “좋은 드라마를 열심히 만들면 이렇게 알아준다는 것을 알게 한 만큼 더욱 열심히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여성과 한국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한국국적 취득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

을 담은 ‘휴먼다큐 그날-다섯 살 소녀 지현이, 아빠 처음 만나는 날(MBC)’은 여성 시사교양 부문 수상작에, 아날로그 시대 전자쓰레기의 현주소를 집중조명한 ‘환경스페셜-디지털 시대의 그림자, 전자쓰레기(KBS부산)’가 환경 부문 수상작에, 진정한 이웃으로 성장하게 되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극대화한 ‘다문화 드라마-마주보고 웃어(EBS)’가 평화부문 수상작에 선정되었다. 특히 환경 부문 상을 받은 KBS부산의 경우 지역방송을 인정해준 것에 대해 큰 감사를 표했다.

이밖에 산 채로 가족을 벗겨 모피를 만들어내는 참혹한 과정을 담아 인간의 이기심을 되돌아보게 하고 방송 이후 모피 반대시위와 동물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커다란 반향을 가져온 ‘TV동물농장-당신이 입는 모피의 불편한 진실(SBS)’이 특별상을 받았다. 



사랑을 알려준 사람들

● 글 | 주정식 강릉교도소 사회복귀과 교사

생일 행사에 그렇게 큰 행복감을 느끼기는 처음이었다. 그것은 교도관인 내 삶에 크나큰 은혜의 시작이었고 큰 사건이었다. 그 일은 내가 수용자 생일 행사를 담당하면서 일어났다.

교도관이 되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교도소 수용자들도 생일잔치를 할까? 느낌이 어떨까? 그들이 생일에 필요한 케이크와 음식을 사는 걸까? 케이크는 교도소에서 팔지 않을 것 같은데...'

교도관이 된 후 그 답을 찾았다. 담 안에서도 외부와 다르지만, 생일잔치가 열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행사 준비와 진행을 외부 봉사단체에서 주관한다. 그 단체가 바로 강릉YWCA이다.

수용자 생일 행사를 담당하기 전에는 YWCA가 무슨 단체이고 어떤 일을 하며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몰랐다.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이라 할 수 있는 수용자를 위해 생일 행사를 주관해 준다고 하니 분명 대단한 단체임에는 틀림없을 거라 생각하며 인터넷에 '강릉YWCA'를 검색해 보았다. 역시 많은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소

외된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단체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강릉교도소와의 인연이 강릉YWCA 창립 초기인 1988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지금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고,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수용자를 위한 봉사를 생각했다는 사실에 수용자 교정·교화를 담당하는 교도관으로서 존경심이 들었다.

행사 전날, 생일을 맞이한 수용자에게 참석 여부를 묻기 위해 수용동(수용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방이 있는 건물)과 취업장(징역형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된 수용자들은 정역(定役)의 의무가 있는데 이들이 작업을 하는 장소)으로 갔다. 수용동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취업장은 한 사람이 행사 참석을 위해 자리를 비우게 되면 동료 수용자들이 그 일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 희망자들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생일 행사라는 말에 동료 수용자들은 "꼭 참석해. 가서 목사님 좋은 말씀도 듣고, 맛있는 음식도 오랜만에 먹고 와. 가면 신나는 일도 많을 거야"라고 말을 했다.

담 안에 있는 이곳도 일반 사회와 똑같은 것을 알았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경직되고 차가운 그런 곳이 아니라 따뜻함과 동료 간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해준 강릉YWCA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다.

생일 행사 당일이 되자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내가 말을 할지, 수용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너무 궁금했다. 그 분들을 맞이하기 위해 교도소 정문(담 안으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으로 갔다.

‘어라. 이게 아닌데...’ 그 분들은 교도소 출입에 아주 익숙했다. 또한 따뜻한 웃음과 함께 담당자인 내게 첫인사를 해주어 소심했던 날 편하게 해주었다. 봉사자 분들이 가져오신 케이크와 과자, 과일 등을 보면서 수용 질서 확립과 보안 유지를 최고라 여겼던 내 맘에 조금씩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행사는 간사님의 설명과 목사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음식 먹으면 끝나는 건가? 음, 너무 종교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면 다른 종교를 가진 수용자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며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1부 행사가 끝난 후 봉사자 분들은 케이크에 초를 꽂고, 음식을 탁자 위에 놓았다. 너무 익숙하게, 빠르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내가 도와줄 것이 없었다. 봉사자 분들의 표정을 보았는데 너무나 행복한 표정이었고, 수용자들과의 간단한 대화도 즐겁게 이끌었다. 수용자들이 무서워 내가 많이 움직여야 할 거라고 걱정을 했던 것이 부끄러웠다.

초에 불을 붙이고, 생일 축가를 불렀다. 수용자들은 그때까지도 많이 수줍어했다. 생일 축가를 부르진 못하고 박수만 칠 뿐이었다. 축가를 마치고 케이크의 촛불을 꺼야 하는데 누구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내가 분위기를 이끌어야 하나...’

그때 간사님과 다른 봉사자 분들이 분위기를 이끌었다. 매우 위트 있는 말과 행복한 표정으로 수용자들의 마음을 서서히 열었다. 결국 수용자 중 두 명이 나와 촛불을 켜다. 모두들 박수를 쳤고, 그때서야 수용자들도 해맑은 웃음을 지었다.


다시 또 봉사자 분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케이크를 자르고 그것을 수용자 한 명, 한 명에게 나누어 주며 “맛있게 드세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했다. 수용자들이 그렇게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모두들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간사님이 나오셔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한다고 했다. 잘 참여해줄까라고 걱정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행사장 안은 웃음이 넘쳐났다. 서로의 손을 잡으며 행복한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것 같았다. 1부 행사 때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 종교적이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누가 과연 수용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복한 웃음과 대화를 던질 수 있을까. 누가 과연 이들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봉사하려고 할까.

내가 교도관으로 일을 하며 어떤 보람을 찾지 못했던 것은 결국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였던 것이다. 소외된 수용자들의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YWCA 봉사자 분들의 사랑의 손길을 보며 나는 비로소 새로운 눈을 떴다. 그것은 내 삶에 찾아온 축복이었다.

나는 그 순간 앞으로 교도관으로서의 각오를 생각했다. ‘난 이들을 지키기 위해 여기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다.’

행사가 끝난 후 봉사자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그리고 다시 텅 빈 행사장으로 돌아와 아직도 가득 차있는 그 행복과 사랑을 느끼며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내게 행복한 순간과 교도관으로서의 사명을 알려 준 강릉 YWCA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합하면 큰 힘

● 글 | 오은자 원주YWCA 회장




▶ YWCA의 정성을 담은 라면상자 앞에서, 맨 오른쪽이 오은자 회장.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하여 많은 희생자들과 전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은 이재민들을 보면서 또한 이 여파로 생긴 일본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 사고가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원전 누출사고는 자연 재해 이상으로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강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는 눈물을 삼키며 묵묵히 참아냈던 일본인들도 원전 인근 지역에서 방사능 측정 수치가 높아지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심지어 국외로 도피까지 감행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몸에 밴 질서의식으로 침착하게 대처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이 존경스럽기도 하다는 글과 뉴스도 보았었다. 한일 간의 굴곡진 과거사를 잊을 수는 없지만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인도적으로 마음깊이 애도하고 피해자들이 용기를 잃지 않기를 기원해 본다. 사상 유래 없는 피해와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일본국민이 전 세계에 보여준 질서의식과 이타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또한, 주변국들과 인종, 종교, 정치적 이해를 떠나 어려움에 처한 인류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모두 다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고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며 더 이상의 재앙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가깝고도 먼 이웃인 일본에 이런 일이 생겨서 많이 슬프지만 일본 국민들이 힘과 용기를 내서 하루 빨리 아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YWCA가 전국적으로 성금을 모았고,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솔선하여 돕고자 나서는 것을 보며 적은 물질이지만 서로 힘을 합하면 큰 힘이 된다고 생각했다.


이번에 전국 YWCA에서 준비한 라면을 공장이 있는 원주에서 컨테이너 박스에 싣는 것을 직접 보면서 지금 일본인들이 가장 필요한 물품을 우리들이 준비하여 준다고 생각할 때에 보람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원전 공포와 피해로 인하여 더 큰 재앙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어려울 때 서로가 도움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필요한가를 다시 한 번 느껴본다. 

사랑의 물을 보냅니다, 힘내세요!

● 글 | 김현희 속초YWCA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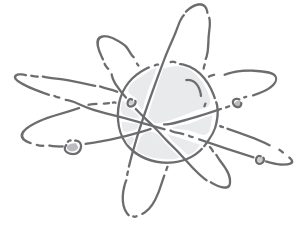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내일 2시에 고성의 강원 심층수를 심는다고 합니다. 1시 30분에 YWCA에서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내려놓고 벽찬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진다. 늘 어떠한 모금이나 성금은 작은 정성만 보태고 ‘알아서 하시겠지’하며 그냥 넘기기 일쑤였다. 한국 YWCA의 일본 지진 피해 돕기 모금은 조금 다른 느낌이였다. 속초 YWCA과 가까운 지역의 식수를 일본으로 보낸다고 하여 신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정호남 회장, 허경심 부회장과 함께 속초에서 20여분 떨어진 고성군 강원심층수에 도착하여 생수 ‘천년동안’을 만드는 과정을 보고 컨테이너를 실은 대형차가 도착하지 않아 1시간가량을 차에서 기다리던 중 도로 끝에서 대형차가 모퉁이를 돌아 모습이 보이는 순간 “와!” 환호성을 쳤다.

1.2L의 식수 38,400개를 3개의 컨테이너에 나누어 심는데 물을 싣고 여분의 공간에는 커다란 종이봉투에 공기를 가득 넣어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운반되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의 정성으로 보내어지는 식수는 지난 4월 14일 고성에서 컨테이너에 실은 후 부산항으로 옮겨진 뒤 배로 일본으로 운반되어 일본YWCA에 전해질 것이라고 했다.

YWCA의 정성을 모아 보내는 식수와 먹을거리가 일본에 안전하게 전해져 그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고 희망을 갖고 회복하는 일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호남 회장은 컨테이너에 마지막 봉인을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기를 기도드렸다. 사랑의 물을 한국 YWCA가 일본 YWCA에 보냅니다. 일본, 힘내세요! 



▶ 생수를 실은 컨테이너에 마지막 봉인을 하는 정호남 속초Y 회장.



한국의 원자력 소비자들이 고민해야 할 숙제



● 글 |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원자력, 후쿠시마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

지금 이 순간 독자들은 아마도 어두운 방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주는 형광등 아래에서 이 글을 읽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머리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한번쯤은 이런 질문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아무런 불편 없이 마음껏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평생 동안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이 질문을 이제는 치열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절반이 '원자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원자력으로 인해 지금 우리는 바로 옆 나라 후쿠시마에서 원전사태가 발생해서 수많은 이재민들이 고향에서 쫓겨난 채 낮은 땅에서 헤매는 모습을 보고 있으며, 그 원자력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방사능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짐작조차 되지 않는 마이크로 시버트라는 눈에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방사능이 태평양 바다 속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고, 이제는 동해에서 잡히는 생선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지경이 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먼 나라 일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다.

대한민국 원자력의 현실

전 세계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나라는 단지 30개 국가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 한국은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독일 다음으로 설비용량 기준 세계 6위의 원전대국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한국보다 더 많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5개 국가 가운데 3개 국가에서 대규모 원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1979년에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가 발생했고, 러시아는 1986년에 체르노빌사고가 발생했으며, 일본은 이번에 7등급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었다. 나머지 두 나라 가운데 하나인 독일은 원전폐쇄를 법률에 명시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사고는 프랑스 아니면 한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짐작된다.

● 세계 각국의 원전설비 현황 ●

순위	국명	운영 중			건설 중	
		설비용량(만kW)	기수	점유율(%)	설비용량(만kW)	기수
1	미국	10,574.80	104	19.4	121.8	1
2	프랑스	6,602.00	59	76.8	165	1
3	일본	4,958.00	55	27.5	91.2	1
4	러시아	2,324.20	31	16	504	7
5	독일	2,149.70	17	27.3	-	-
6	한국	1,771.60	20	35.5	680	6
7	우크라이나	1,383.50	15	48.1	200	2
8	캐나다	1,342.50	18	14.7	-	-
9	영국	1,190.20	19	15.1	-	-
10	스웨덴	940.2	10	46.1	-	-

자료: IAEA, 2008, 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6위이지만, 사실 단위면적당 원전 비율로는 한국이 세계 1,2위를 다툴 정도이다. 그만큼 한국은 원자력이라는 위험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가까이에 두고 살아가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2008년에 수립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앞으로 12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데 한국은 더 원자력 의존적이고, 더 위험한 나라가 되려 하고 있다.


더군다나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사용 후 핵연료라는 원자력쓰레기는 지구상에서 처리할 장소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땅이 넓은 미국에서도 처리장을 건설하지 못해 고생하고 있을 정도이다. 쓰레기처리장 하나 준비하지 못한 채 원전이 건설되는 지금의 상황을 ‘화장실 없는 집’이라고 한다. 우리가 과연 화장실 없는 집에서 살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2016년이면 발전소 내에서 보관 중인 원자력 폐기물을 보관할 공간마저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건설된 적이 없는 처리장을 한국에 건설할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몇 만 년이 지나도 처리가 되지 않는 핵쓰레기를 5,000년 역사밖에 안 되는 한국 땅에서 처리하고 싶은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국 원자력 소비자의 숙제

최근 들어서 주변 사람들로 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된다. 그전까지만 해도 에너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

에서 원자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통해서 원자력의 위험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몇몇 전문가 집단들과의 밀실행정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려 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정책은 정부와 소수의 전문가들이 결정하면서, 신규 원전과 방폐장의 부담은 국민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특히 최첨단 과학기술인 원자력을 국민들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원자력 마피아(nuclear regime)’라고 불리는 소수의 전문가와 관료집단이 결정하려 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로 인해 발생하는 원자력과 핵쓰레기의 처리 문제는 바로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몇몇 전문가 집단의 밀실행정에 맡겨 놓지 말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함께 고민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원자력이 아니라 태양광과 풍력이라는 깨끗한 재생가능에너지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려는 원자력정책에 관심갖고, 비판하고, 참여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엄마 신드롬, 엄마의 행복을 부탁해

● 글 | 김지숙 전 연합회 간사 / 소설가



미국에서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영문제목 Please Look after Mom)'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엄마를 부탁해'는 이미 2009년 한국에서 100만부의 판매고를 올리며 '엄마 신드롬'을 몰고 온 바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의 반응이 한국의 반응과 흡사하다는 것. 미국 독자들 역시 작품 속 엄마 이야기에 감정이입을 하고, 엄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

우리는 엄마가 필요해

미국에서는 '맘마미아'에 나오는 쿨한 엄마만 먹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엄마'가 몰고 오는 눈물폭탄은 우리나라에 서만 유효한 게 아닌 모양이다. 그리고 보면 '엄마'만큼 시공간을 초월해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단어도 흔치 않을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소설 '엄마를 부탁해'에서 시작한 엄마 신드롬은 영화, 연극 등까지 번졌다. '친정엄마', '친정 엄마와 함께한 2박 3일' 등의 연극이 인기를 끄는가 하면, '애자', '마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같은 엄마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도 주목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

우리는 난데없이 왜 이렇게 엄마를 찾는 걸까. 그건 평

소에 우리가 엄마를 언제 찾는지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없다. 사람들은 주로 자신이 힘들 때 엄마를 찾는다. 바쁜 삶을 살다가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면 엄마가 수호천사처럼 쯤! 하고 나타나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괴롭히는 악당들을 물리쳐주기를 바란다. 경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사회가 삭막해질수록 엄마의 존재는 더욱 절실해진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편이 되어 주고 화수분 같은 사랑으로 자신을 보듬어 줄 존재가 필요한 것이다. 유명한 유대 격언 중에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엄마에게 신의 지위를 부여하고 수호천사 노릇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엄마 신드롬의 주역인 엄마들은 어떤 모습일까. 그야말로 수호천사에 버금가는 모습들이다. 작품 속의 엄마들은 대부분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고, 날 보듬어 줄 것만 같은 엄마들이다. 가족은 엄마의 존재를 믿고 각자 바쁜 삶을 살아간다. 그러다가 엄마가 실종되거나(소설 '엄마를 부탁해'), 엄마가 시한부 선고를 받거나(영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자신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연극 '친정엄마') 비로소 엄마의 소중한 존재를 깨닫




는다. 소설가 신경숙은 한 인터뷰에서 “소설에서 엄마는 복잡한 인파 속에서 실종되지만, 엄마는 사라짐으로써 오히려 우리에게 확실한 존재감으로 되살아난다”고 말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에서도 엄마의 존재는 엄마의 부재로서 증명된다. 영화 속에서 아내이자 엄마, 며느리로서 희생해 온 인희(배종옥 분)는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다가 떠난다. 작품 속의 엄마들은 원망하거나 불만을 표시하지 않는다. 끝까지 가족을 사랑으로 감싼다. 그렇기에 엄마의 부재는 뒤늦게 죄책감과 슬픔을 동반하며 통렬한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희생의 아이콘 ‘엄마’

그런데 작품 속 엄마들을 살펴보면 드는 의문이 있다. 어쩌서 엄마들은 하나같이 희생의 아이콘이 되었을까. 그건 우리네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조건 없이 베푸는 파스한 모성의 본질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엄마를 소재로 한 영화나 연극을 보다보면 마음이 알싸해지는 한편,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대체, 왜 엄마들은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아야 하지, 엄마도 이제 좀 이기적

로 행복해지면 안 되나, 하는 생각 때문이다.

엄마 신드롬을 잘 들여다보면 ‘엄마’를 대하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대하게 된다. 엄마의 소중함을 깨닫고 ‘엄마한테 잘해드려야지’하고 다짐을 하면서도 엄마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몇 년 전 엄마 신드롬의 한 축을 담당했던 드라마 ‘엄마가 뽀뽀했다’를 다시 끄집어내 보자. 드라마 속 뽀뽀 엄마는 위에 열거한 헌신적인 엄마들과는 사뭇 다르다. 자신의 행복을 찾아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요구하는 엄마이다. 뽀뽀 엄마는 헌신적인 엄마처럼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작품 속 엄마가 휴가를 요구한 것에 대해 통쾌하다고 말한 사람이 있는 반면 지나치다, 불편하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시청자들도 많았다.

어쩌면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맞춰서 엄마의 신뢰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 맞는 엄마의 모습에서 위로받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사람 수만큼이나 엄마의 얼굴도 다양하다. 헌신적인 엄마뿐 아니라 도발적인 엄마, 당당한 엄마, 코믹한 엄마, 마당발인 엄마, 아픈 엄마, 바쁜 엄마도 있다. 희생하는 엄마의 신뢰를 넘어, 이제 엄마의 진정한 행복을 부탁하고 싶다. 

BOOK



창세기 역주

● 글 | 방석중 역주 ● 전통문화연구원

방석중 역주 / 전통문화연구원

이 책의 히브리어 원문 번역은 본문 비평을 거쳤으며 4대 공용 번역을 비평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말 성경의 세계화를 목표로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하고자 하였다. 5년 남짓한 강독과 역주까지 도맡은 방석중 교수를 중심으로 은평감리교회의 모세오경 연구과정 회원들의 노고가 스며든 작품이다.

바보 빅터

● 글 | 호야킴 데 포사다·레이먼드 조 ● 한국경제신문

국내에서만 300만 부 이상 팔린 <마시멜로 이야기>의 작가가 5년 만에 내놓은 책. 국제멘사협회 회장을 지낸 천재 '빅터 세리브리야코프'가 17년 동안 바보로 살았던 실제 사건이 중심이다. 또 다른 주인공 '로라' 역시 못난이 콤플렉스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았던 사연을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해 고백한 '트레이시'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빅터와 로라 두 제자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문학교사 레이첼, 빅터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무한한 기회를 제공한 테일러 회장 등이 무게감 있는 조연으로 등장해 극적 긴장감을 더한다.

도시농업 : 도시농사꾼이 알아야 할 모든 것

● 글 | 사)전국귀농운동본부 텃밭보급소 엮음 ● 들녘

도심 곳곳에서 도시농업 운동을 활발하게 펼쳐나가는 전국귀농운동본부는 이 책을 통해 약간의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발품을 조금만 팔면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알려준다. <도시농업>에는 요양병원 옥상에 텃밭을 일구어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도시텃밭 보급원, 학교 화단에 텃밭을 가꾸어 아이들에게 생태교육과 자연 체험학습을 유도하는 선생님들을 비롯해 농사 공동체를 만들어 주말마다 교외농장에서 땀 흘리는 도시농부, 조례와 각종 지원을 맡아주는 제도 전문가 등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도시농사꾼들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나 같은 늙은이 찾아와줘서 고마워

● 글 | 김혜원 ● 사진 | 권우성·남소연·유성호 ● 오마이북

서울에서 외롭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독거노인 12명을 인터뷰한 책. 우리의 이웃으로, 같은 하늘 아래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지만 우리는 그 존재를 대부분 잊고 산다.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는 안타까운 사연이 TV와 신문지면을 통해 세상에 알려질 때만 반짝 관심을 가질 뿐이다.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 이들의 지나온 삶을 듣노라면 한국 현대사를 관통한 우리 부모 세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삶.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을 환기시키며 공동체적인 대책과 지원을 담담하게 호소하고 있다.



제9회 한국여성지도자상의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한국YWCA연합회는 YWCA-씨티은행 여성지도력 개발 협력사업으로 2003년 '한국여성지도자상'을 제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여성지도자상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5월 31일까지 추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시상요강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9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요강

1. 시상부분

가. 대상 나. 젊은지도자상 다. 특별상

2. 시상인원

- 가. 해당 부문별로 1인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상자가 될 수도 있음.
- 나. 생존자에게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함.
- ㄱ. 수상자로 결정된 후에 사망한 자

3. 추천대상 및 자격

- 가. 대상
전문적인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창조와 봉사의 정신을 발휘하여 여성 지도력의 신장과 개발에 공헌한 대한민국 여성
- 나. 젊은지도자상
전문성, 창의력, 헌신과 기여 등을 바탕으로 미래 한국여성의 역할을 열어가는 50세 이하의 대한민국 여성
- 다. 특별상
세계화 시대의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통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온 대한민국 내에서 활동하는 여성 또는 단체
※단 본 상과 유사한 상의 수상경력자는 제외함.

4. 시상내용

- 가. 대상 : 상패, 상금 2천만원
- 나. 젊은지도자상 : 상패, 상금 1천만원
- 다. 특별상 : 상패, 상금 1천만원
- ※단 공동수상의 경우에는 상금을 균분하여 수여함.

5. 후보자 추천

- 가.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회 위원
- 나.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회가 추천인으로 위촉한 개인

- 다. 교육계 인사 및 대학총장
- 라. 종교 및 사회단체장
- 마. 언론 기관장 및 기타 언론인
- 바. 일반시민 또는 동료사원 20인 이상의 개인

6. 제출서류

- 가. 추천서 1부(소정양식)
- 나. 후보자 이력서 1부(소정양식)
- 다. 후보자 공적서 1부(소정양식)
- 라. 명함판 사진 1장
- 마. 증빙자료

7. 수상자 선정 절차

각 계의 권위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심사회의에서 수상후보자를 수 명으로 압축한 후, 최종 수상자를 결정함.

8.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 가. 발표 : 2011년 8월 초
- 나. 시상 : 2011년 9월 8일(목)

9. 서식배부 및 접수

- 가. 추천서 배부 : <http://www.ywca.or.kr>에서 다운로드
- 나. 접수처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3 (사)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회 (우 100-121)
TEL:(02)774-9702 FAX:(02)774-9724
E-Mail: ywcamail@naver.com
- 다. 접수기한 : 2011년 5월 31일(화) 우편접수 마감 당일 소인 유효

10. 기타

- 가.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로 문의하세요.

'산소 내뿜는' 흡침대 봄세일!

"불면증, 허리쭉심, 늘 피곤한분"

세계 제1의 침대
특허왕! 미국 FDA 등록

침실에 수맥이 흐르면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 유없이 허리가 쭉시고 감기가 자주든다. 성격이 민감해져 대인관계가 부정적으로 된다. 가족관계가 충돌이 잦으며 더욱이 취침시 꿈을 많이 꾸어 악몽에 시달린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 하다. 무릎이 쭉신다. 학생들은 학습장애가 되어 성적이 떨어진다. 그 이유는 수맥이 흐르면 혈관을 수맥파가 압박을 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맥이 흐르면 식욕이 떨어지며 신혼부부의 불임증과 기형아를 낳을수도 있고 집안에 우환이 많이 생긴다. 팔 다리가 부자연스럽고 두들겨 맞은 듯한 몸상태가 된다.

김수환 추기경 침소,
윤보선 대통령 생가 탐사

20여년 연구한 수맥 흡 침대 이경복 사장은 한양대학에서 수맥과 건강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각종 특허류가 100여종이며 그 결과 산업훈장과 과학기술부 장관상등 수많은 공적을 쌓았다. 또한 이러한 공로로 김수환 추기경계 감사패를 받기도 하였다.

이미 독일,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입증되어 대학에서도 수맥 강좌를 연다. 침실, 공부방, 식탁아래 등은 필히 수맥검사를 하여 차단하거나 피해야만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다. 수맥 침대는 산소 내뿜는 침대이며 참숯으로 만들어져 친환경적으로 공기 정화 침대이다.



편안한 잠을 위해 수맥차단 사실을 증명하는 李京馥 대표

성적이 쑥쑥
공장 직판 최대 전시장

수맥 차단 특허, 전자파 차단 특허, 공기정화 특허 등 품질면에서 세계 제1의 특허 왕이다. 가령 가슴 부위로 수맥이 흐르면 혈관을 압박하여 감기가 잦고 기관지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다.

어버이 선물 세일
훈수 용품으로 인기 폭발

잠실역 제2롯데 공장과 명동성당앞에 본사 직영 전시장을 갖추고 있으며 판매가격은 회사 직영으로 타사보다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저렴하게 판매 하고 있다.

FDA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ENTER FOR DEVICES AND RADIATION HEALTH	
5100(k) Registration Listing Adverse Events PMR Classification CLIA CFR Title 21 Advisory Committees Assembler NREIC Guidance Standards	
Device Listing Database	
Proprietary Device Name:	SOOMACK STONE BED
Common/Usual Device Name:	SOOMACK THE COURSE OF A STREAM STONE BED
Classification Name:	PAD, HEATING, POWERED
Device Class:	2
Product Code:	WT
Regulation Number:	800.5740
Medical Speciality:	Physical Medicine
Qinet/Operator:	SOOMACK STONE BED CO.
Qinet/Operator Number:	8009671
Registered Establishment Name:	SOOMACK STONE BED CO.
Establishment Registration Number:	300420818
Date of Listing:	1/1/2003
Listing Status:	Active
Establishment Operations:	Manufacturer

수맥돌침대 미국FDA인증서

이경복 사장은 김수환 추기경 침소와 윤보선 대통령 생가 수맥 검사 등 전국 5000곳을 탐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www.smbed.co.kr

잠실 공장
명동성당앞 1588-5335

오래된 가족 사진첩



젊은 날 아버지의 멋스럽게 내린 앞머리와
 젊은 어머니의 잘록한 허리
 금방이라도 토닥이며 싸울 것 같은
 조롱조롱한 나의 형제들...
 사랑하는 가족... 그러나 가족이 어찌
 사랑만 하겠는가?
 가족은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지만
 때론 가장 먼저 힘들게 하는 것 또한
 가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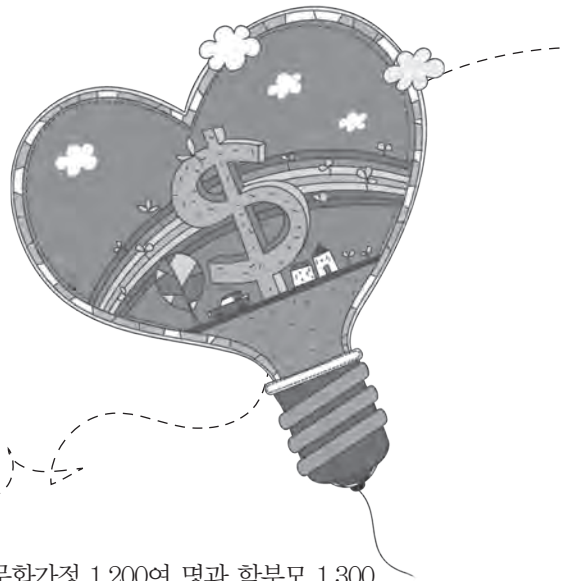
어머니에게서 받은 섭섭함과
 언니에게서 받은 속상함...
 힘이 되어 줄 거란 기대감 때문이었을까?
 그런 상처들이 내내 나를 아프게 하며
 추억조차 슬프다.

가족을 대하는 나의 눈빛과
 사소히 흘리는 말들을 걱정하며
 나는 오늘도 가족과 함께 하କୁ를 보낸다.



2011년 5월
 장항화원신

청소년 금융교육의 국제화 : 세계 경제정의 실천의 요람 되어야



● 글 | 연합회 세계대회 준비팀

바른 나눔과 기부문화를 배우는 살아있는 교육 현장,
'씽크머니'



전국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금융교실 씽크머니(한국YWCA주최, 씨티은행 후원)의 국제화가 시급하다. 한국YWCA는 씽크머니를 현명한 소비자로 길러내는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만이 아닌, 세계시민의 성장과 나눔교육의 국제운동으로 삼아야 한다.

지난 6년 간 씽크머니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뤄왔다. 초기 중학생 대상에서 2008년에는 참가 대상을 확대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교육 받을 기회를 주었다. 2009년은 교육대상에 다문화가정과 학부모까지 포함시킨 해이자, 교재도 학습과정도 세분화한 시기이다. 2010년도에는 교육 대상에 저소득·소외계층을 포함하고 그들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했으며 올해엔 금융교육 대상을 전문계고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교육의 전문화를 계획하

고 있다. 현재까지 다문화가정 1,200여 명과 학부모 1,300여 명을 포함한, 총 239,664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해 바른 금융가치관 교육과 기부문화 교육을 받았다.

새로운 리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금융교육

YWCA가 제공하는 씽크머니의 교육 내용은 특별하다. 첫째, 돈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교육이다. 돈은 목적이 아닌 도구이기에 돈의 사용은 모두 인간의 문제인만큼, 올바른 돈의 가치관 확립이 무척 중요하다. 둘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한 준비작업과 실천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에 대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길을 금융이라는 관점에서 교육하기에 더욱 특별하다. 저축과 신용의 중요성을 배워, 돈이 삶의 목적일 수 없음을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삶의 도구라는 현실을 깨달아 이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훈련이다. 셋째, 씽크머니 교육 대상은 다양하다. 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한 폭넓은 연령층과 다문화가정과 여성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다양한 계층에게 교육한다. 넷째, 씽크머니는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체험활동 금융교육이다. 어렵고 딱딱한 접근을 통해 단순 지식 주입형 금융교육보다 체험활동을 통해 놀이처럼 배운 금융에 대한 지식과 바른 가치관은 평생 남는다.



미국과 영국의 금융교육

김용자 숙명여대 교수의 '씽크머니 금융교육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994년 '2000년을 향한 미국교육법'을 제정하여 경제학 교과내용의 전국표준권고안을 마련해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와 의회가 금융교육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청소년 금융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을 적극 장려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일부 교사나 교장만이 주도하는 교육과, 학교 내 시스템이 아닌, 외부단체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YWCA가 금융교육을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려 애쓰는 것에 비해 미국은 이미 제도적 뒷받침은 이루었으나, 실질적인 교육의 양과 질, 수준에 있어선 오히려 한국의 씽크머니보다 부족하다.

영국의 경우 웨일즈는 7~16세 학생에게 금융교육을 의무화했으며, 북아일랜드의 경우, 수학과 생활·직업교과에 금융교육을 포함하였다. 금융교육은 주로 수학, 사회, 건강, 경제교육(PSHE), 시민의식 교육 및 경영학에서 다루고 있다. 이처럼 영국의 금융교육은 우리의 씽크머니와 같이 체험활동을 통한 자연스러운 체화보다는 지식주입형이다. 두 나라의 어디에서도, 씽크머니가 추구하는 올바른 돈에 대한 가치관 확립의 교육이 없고, 전문적이고 복잡한 금융제도를 활용한 교육을 추구한다.

세계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씽크머니가 그 답이다!


세계 125개 Y회원국 중 현재,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국가는 없다. 한국의 씽크머니 교육은 세계에 유래가 없는 독특한 금융경제 교육이다. 세계YWCA 회원국들은 공히, 미래 세계의 리더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금융시장의 정착하고 능력 있는 리더가 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씽크머니 교육의 전 과정을 충분히 벤치마킹해야 한다. 세계적 네트워크의 세계YWCA가 한국의 씽크머니의 노하우와 교재를 Y회원국에 지원하여 국제적 연

대감을 높이고 또한 세계시민차원의 나눔과 성장의 금융운동으로 전환하기를 바란다.



세계YWCA 속의 한국 YWCA,

씽크머니 금융교육으로 더 가까워져

씽크머니 교육은 바로 '경제 분야의 변화를 이끄는' 지구촌운동의 요람이며, 전 세계로 확산해야 하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기본 경제 교육의 모범이다. 씽크머니 금융교육의 국제 프로그램화는 궁극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국경을 넘어선 나눔문화와 기부문화 확산이 목적이야 한다. 나눔과 기부는 습관이자 문화이다. 어려서부터 두 개를 얻으면 하나는 내 이웃과 나누어야 한다는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경제활동을 시작한다면, 나눔은 생활 속의 실천이 된다. 전 세계의 씽크머니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만드는 세계경제는 씽크머니 금융교육의 가치인 '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사회'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가치, 한국YWCA의 목적문이 가리켜주듯이 '정의와 평화와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하는' 목적을 위한, 경제 정의 실천의 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교육이기 때문이다. 씽크머니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고 국제화되어, 세계의 YWCA 회원국과 함께 건강한 금융경제 정의가 보전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 

YWCA 생명운동으로서 EM 활용

● 글 | 최형선 연합회 생명운동팀장 / 환경부 심의위원



자정능력 잃은 인공 환경 속 미생물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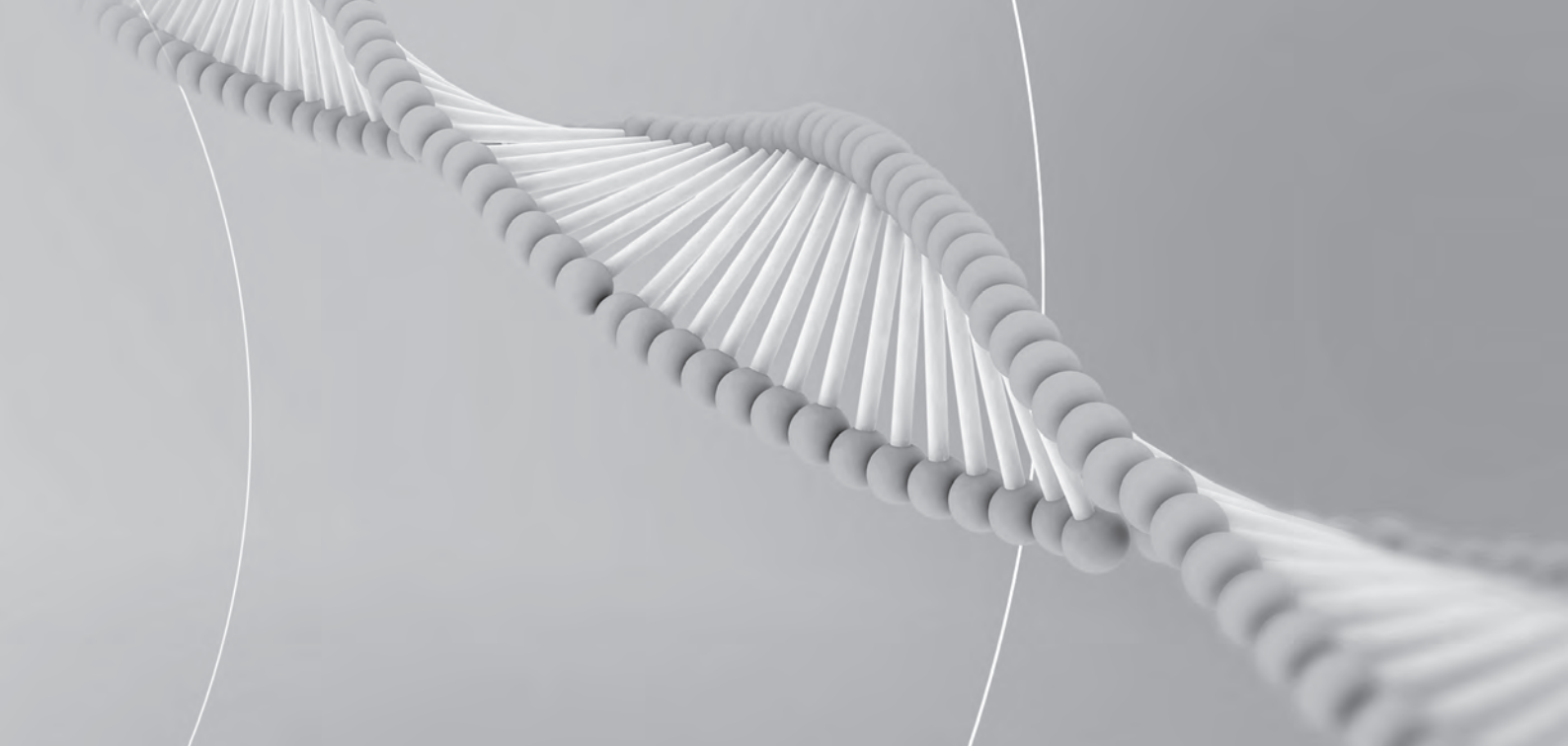
미생물 시대다. 그만큼 미생물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다. 급변하는 환경일수록 적응 속도가 느린 대형동물에 비해 미생물은 번성 기회를 재빨리 차지할 확률이 높다. 미생물은 첨단 과학기술로 무장한 인간의 일상을 한 발자국씩 앞서며 휘젓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나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생태계의 교란에도 무심하던 우리는 드디어 직접적인 위협이 다가옴을 깨닫게 되었다. 질병을 일으키는 각종 병원성 미생물은 자정(self-purification)능력을 상실한 인공 환경의 빈틈을 여지없이 비집고 들어가 번성한다. 의약기술은 변이를 일으켜 변종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이들의 생존전략을 따라잡기에 혁혁대는 실정이다. 불결한 환경에서 노폐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생물의 사체가 늘어나 유기물이 급격히 많아진 곳에는 부패균이 번성한다. 토양과 물에서 많은 유기물이 썩게 되면 악취를 풍기는데, 부패성 세균이 유기물을 불완전하게 분해하면서 악취가 나는 가스가 생기기 때문이다. 부패균은 병원균과 독소를 생성하고 물질을 변질시켜서 생태계에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구제역 대응에서 간과한 것

2010년 11월 말부터 2011년 초까지 구제역이 축산 농가를 휩쓸었다. 구제역은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되는 급성전염병이다(일반적인 균의 번성과 달리 숙주의 몸에 들어야 번성할 수 있는 바이러스는 추울 때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소, 돼지, 양, 사슴 등)의 발굽에 수포가 생기고 괴사가 진행되며 급격히 확산되는 특징이 있기에 350만 마리에 육박하는 소와 돼지를 서둘러 살처분하고 매몰했다. 매몰지에서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유해균의 번성이 우려된다. 균(곰팡이)과 세균은 습하고 더워지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악취가 심해지고 병원균, 침출수에 포함된 각종 부패균이 토양과 지하수와 식수원을 방대한 규모로 오염시킬 우려가 크다.

EM 운동이 곧 생명운동


한국YWCA는 토양과 물을 살리기 위해 EM(유용미생물)을 활용하기로 결의했다. EM 활용은 유용미생물이 유해미생물과의 생존경쟁을 이겨내 유해미생물 번성을 차단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장에서 일어나는 미생물 간의 경쟁과 같다. 대장에 상존하고 있



는 유익균은 유해균의 침입과 증식을 막아 건강을 지켜주며 면역세포 활성화시킨다. 유익균이 줄고 유해균이 번성하면 장내 부패가 촉진되어 노화가 빨라지고 발암물질이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장내 세균의 균형은 질병의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토양과 하천에 사용될 EM은 바로 유해균을 막아내 생태계의 건강을 지켜낼 첨병이다.

EM은 복합미생물이어서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도 잘 살아남는다. EM용액은 산성을 띠지만 구제역 매몰지 소독약으로 사용한 생석회의 높은 알칼리 상태에서도 활성상태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EM은 다양한 조건에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은 생태계에 대한 EM의 안전성인데, 유해미생물을 줄이고 유용미생물이 증가하면서 토양미생물의 질소고정 능력이 증가하고 식물 뿌리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각종 배설물이나 생물의 사체를 분해해서 생태계 청소 역할을 담당하는 토양미생물의 기능이 회복될 것이다. 해충발생과 악취가 줄고 철이나 식품의 산화 또한 줄일 수 있다. EM은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세균, 방선균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미생물이다. 된장, 고

추장이나 치즈를 만들 때 그리고 맥주, 포도주를 담글 때 역할을 하는 효모균이나 누룩곰팡이, 푸른곰팡이를 비롯한 발효미생물이 포함되고, 토양생물과 식물의 뿌리가 호흡할 때 나오는 탄산가스와 단백질이 부패할 때 나오는 황화수소를 재료로 광합성을 해서 당분을 만드는 광합성세균이 포함된다. 토양에서 분해하기 힘든 유기물을 잘 분해하는 방선균이 포함되고, 병원균과 유해세균의 생육을 저지하는 유산균 또한 포함된다.

다양한 유용미생물은 다양한 매몰지 환경에서 악취를 저감하고 침출수 오염을 줄일 수 있다. EM 투입 후 매몰지에서 악취가 현격히 줄었다고 한다. 부패에 의한 악취가 줄었다는 것은 미생물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다. 구제역 사후 대책으로 EM은 오염지에서는 유해균 번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되고, 사전 예방 차원으로서는 축산 농가의 위생 개선이나 가축의 면역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토양을 살리고 지속적인 수질 개선을 위해서도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p>천안Y 물질악 환경 인형극(월중) 제주Y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제주여행</p> <p>1</p>	<p>연합회 회원Y 월례아침기도회 강릉Y 의류수선사 양성교육 광주Y 저출산 극복 실천대회-광주 CEO 1차 포럼 김해Y 어린이 액션영어 개강 자기주도적인 삶을 위한 행복특강2 남원Y 산모돌보미 '아기사랑' 민들레모임 대구Y 뮤지개밥상·드림장식·달서자원 운영회의 동해Y 어린이 경제교실 부산Y 진구복지관, 여아이날 행사(~6일) 서울Y 좋은 사람들 협약식 안동Y 다문화 한글교실 다문화 자조모임 진주Y 씽크머니 협력학교 교육 통영Y 애들이 밥 먹자-제일고</p> <p>2</p>	<p>고양Y 제8기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복지관 꿈을 향한 무한도전 광주Y 대학생소비자모니터 오리엔테이션·발대식 남양주Y 조순가정 반찬 나누기(매주 화) 남원Y 가정방문 영어강사 직업기초능력 교육 대구Y 신명고 클럽활동 직업상담사 1차대비반 개강 동해Y 실버스쿨(~31일) 양산Y 도전 한글교실 익산Y 이주여성 한글교육 초급반 제주Y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p> <p>3</p>	<p>광양Y 다문화 종이접기 교실 남양주Y 씽크머니 부모교육-덕소중 논산Y 씽크머니 강사모임 대구Y 성명여중 클럽활동, EM 교육 회원중모운동 3차 보고회 부산Y 제13회 저소득 독거어르신 팔순잔치 사천Y 회원중모운동 발대식 서울Y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을 위한 직장문화 만들기 연대사업 발대식 안동Y 생활체조 교실 진주Y 어린이날 행사 춘천Y 결혼이민여성 의류리폼</p> <p>4</p>
<p>양산Y 양산시 평생학습 축제 민들레 동아리 학교 동아리 발표회 참가</p> <p>8</p>	<p>김해Y 방과후 컴퓨터강사 양성과정 대구Y 여아이날 행사(~11일) 수원Y 회원중모운동 발대식 안산Y 직원아우회 익산Y 합창단 정기연습 제주Y 평화의 섬 '안전지킴이' 양성 프로젝트 진주Y EM 환경활동가 양성교육(~20일) 진해Y '2011 살림의 여왕' 참여자 모집(~27일) 천안Y 고령자 청소미화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개강</p> <p>9</p>	<p>양산Y 민들레 동요학교(매주 화)</p> <p>10</p>	<p>광주Y 사회적기업 사무실 개소식 동해Y 찾아가는 취업창구 마산Y 여성인권지킴이 양성교육 개강 결식아동동기 기금마련 의류바자회(~17일) 동아리 임원회의 서울Y 회원중모운동 발대식 수원Y 결혼이주여성 자녀양육교육 안동Y 사랑의 반찬 나누기 여수Y 선진 상거래 캠페인 천안Y 어울림 정보화교실 개강 청주Y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아카데미 개강 파주Y 지역아동센터 금융교실 평택Y 우쿨렐레 교육-송일초</p> <p>11</p>
<p>진주Y 청소년 문화축제 동아리 홍보부스 운영</p> <p>15</p>	<p>김해Y 구제역 피해농가를 돕기 위한 '김해YWCA 사랑의 대바자회' 대전Y 에너지강사 양성과정 개강 동해Y 집단상담 8·9기(~25일) 사천Y 청소년 성교육-사천여고 서귀포Y 무료직업훈련 프로그램 개강 서울Y 중국알기 연구모임 여수Y EM 교육-여수 충덕중 울산Y 육아·산모 돌보미 교육(~27일) 진주Y 고령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개강 진주Y 어린이집 안전교육 충주Y 식품안전지도사 과정 개강</p> <p>16</p>	<p>연합회 은학의집 창립기념예배 강릉Y 산모돌보미 보수교육 광주Y 5월 Y시민포럼 김해Y 내일배움카드제-파워포인트 개강 대구Y 신명고 클럽활동 마산Y 씽크머니 강사연구모임 부산Y 진구복지관, 재가어르신 나들이 직가래장터(~19일) 서울Y 실버대-멋쟁이 클럽 모임 안동Y 회원중모 중간보고회와 캠페인 안양Y 회관 개관식 인천Y 화관 개관식 충주Y 회원중모 1차 중간점점의 날</p> <p>17</p>	<p>고양Y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사랑의 날 복지관 경기도립의료진 이동진료 광양Y 다문화 한글교실 군산Y 청소년 유행매체 교육 남양주Y 아나바다 나눔장터 논산Y 다문화가정 부모 자조모임 사천Y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 서귀포Y 가사부담 완화사업 밀반찬 지원 서비스 수원Y 알음알음 나눔장터 안산Y 어린이 예코리더 환경교실 원주Y 씽크머니 경제교육-신림중 의정부Y 회원중모운동 발대식 제주Y 역할극을 통한 성폭력 예방 교육</p> <p>18</p>
<p>마산Y 다문화 건강가정 남해갯벌체험</p> <p>22</p>	<p>강릉Y 여성희망찾기 프로그램(~27일) 고양Y 회원중모 발대식 서울Y 실버웃음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개강 속초Y 학교폭력 예방 교육 안동Y 다문화 한글교실, 다문화 자조모임 양산Y 소비자 모니터 교육 의정부Y 경비시설관리원 교육 개강 제주Y 취업희망 프로그램 개강 진주Y 어린이집 영성교육 춘천Y 가사돌보미 교육(~27일) 충주Y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강</p> <p>23</p>	<p>서부지역 자원지도자 교육 대구Y 신명고 클럽활동 서울Y 직장여성리더십 강좌 개강 안동Y 실버대-멋쟁이 클럽 모임 익산Y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EM 활성화 만들기 제주Y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제천Y 회원중모대회, 26기 요양보호사 종강식 충주Y 하나로문화센터 자문위원회 평택Y 어르신 소비자 교육</p> <p>24</p>	<p>광양Y 다문화 한글교실 군산Y EM 흠공 만들기-경포천 투척 동해Y 찾아가는 취업창구 부산Y 2011년 소비자대학(~27일) 서귀포Y 가사부담완화사업 아빠 요리교실 1차 수원Y 결혼이주여성 자녀양육교육 전주Y 저출산 극복 실천대회-전북 CEO 1차 포럼 진주Y 남평지역아동센터 생일축하파티 평택Y 우쿨렐레 교육-송일초</p> <p>25</p>
<p>마산Y 다문화 건강가정 남해갯벌체험</p> <p>29</p>	<p>김해Y 내일배움카드제-한식조리사 개강 안동Y 다문화 한글교실, 다문화 자조모임 의정부Y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개강</p> <p>30</p>	<p>대구Y EM 교육 속초Y 다문화정책 방향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안동Y 실버대-멋쟁이 클럽 모임 안양Y 이사·실무자가 함께하는 Y가족 한마당 전주Y 저출산 극복 실천대회-전북 CEO 2차 포럼 제주Y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창원Y 돌봄과 살림 월례회</p> <p>31</p>	

목요일

부산Y 강서구복지관, 어린이날 가족잔치
 사천Y 지역아동센터 봄나들이
 수원Y 수원시 어린이청소년 한마당
 순천Y 제89회 순천시 어린이날 축제 부스 참여
 안동Y 장애우와 함께하는 봄나들이
 제주Y 어린이집, 어린이날 행사
 역할극을 통한 성폭력 예방 교육
 조치원Y 어린이날 한마당 축제
 진주Y 어린이날 행사-우당탕탕 야단법석 놀이터
 충주Y 어린이날 큰잔치

5

금요일

속초Y 애들이 밥 먹자
 양산Y EM 텃밭
 안동Y 생활체조 교실
 원주Y 성폭력 예방 인형극-이화유치원
 평택Y 우쿨렐레 강사과정

6

토요일

강릉Y Y-틴 인준식
 고양Y 복지관 사회복지학교
 군산Y 어린이날 선물 나누기
 논산Y 우리는 예코 프린터어, 닥터록
 대구Y 성광고·성화중·성화고 클럽활동
 대학생·청소년 자원봉사활동단
 '더불어 함께' 2차 기초교육과 봉사
 서귀포Y 방과후 아카데미 비전스쿨
 서울Y 보육가사들은이 추가교육
 양산Y 어린이합창단
 여수Y Y-틴 봉사활동
 제주Y 여성의 심장 미술치료

7

강릉Y 일일밥집 캠페인
 남원Y 애들이 밥 먹자
 대구Y 디지털TV 전환 교육
 구인·구직 이동상담실 운영
 대전Y 에너지강사 수료생 민들레모임
 동해Y 찾아가는 취업장구
 순천Y 합창단 연습
 안동Y 요요클럽 모임
 안산Y 애들이 밥먹자
 양산Y 다문화 한국문화생활체험(매주 목)
 원주Y 성폭력 예방 성교육-해오름 어린이집
 의정부Y 환경체험교육 전문교사 양성과정 개강
 파주Y 지역아동센터 금융교실

12

연합회 직업훈련담당자 실무자모임
 원주Y 씽크머니 경제교육-복원여중
 제주Y 어린이집 소방사·방송국 견학
 조치원Y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진주Y 회원증모운동 전라수립 워크숍
 진해Y '아금바리꾼'과 함께하는 리폼공부
 파주Y 지역아동센터 금융교실

13

강릉Y Y-키즈클럽 씽크머니 교육
 고양Y 복지관 행복한 놀토학교
 남양주Y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이사·위원·실무자 교육
 대구Y '사랑더하기 나눔의 희망' 멘토멘티 프로그램
 4차 정기모임
 마산Y 건강가정지원센터 영신원 목욕봉사
 부산Y 친구복지관, 책 속 주인공 되기
 서울Y 걷기대회, 결혼이주여성자녀 멘티-멘토 봄소풍
 대학Y 공동체활동, Y-틴 새로배움터
 안산Y 주말버스학교2기-영어마을체험
 진주Y 청소년 YP활동 미디어 교육
 춘천Y 녹색성장실천운동 에코백 만들기

14

남원Y 산사랑반 신형
 대전Y EM 강사 민들레모임
 사천Y 다문화 부모교육
 수원Y 문화답사-강원도 영월
 순천Y 합창단 연습
 안동Y 실버대 봄나들이
 원주Y 성폭력 예방 성교육-에그림 유치원
 제천Y 2차 지원지도자 연수
 파주Y 지역아동센터 금융교실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20일)
 평택Y 어르신 소비자 교육

19

광주Y 청년·대학Y 인준식
 군산Y 평화중고 체육대회
 대구Y EM 교육
 마산Y 아침식탁 캠페인, 씽크머니 학부모교실
 사천Y '사랑이 꽃피는 청소년 세상 만들기' 캠페인
 속초Y 독거노인가정 집안 대청소
 안동Y 생활체조 교실
 원주Y 씽크머니 경제교육-복원여중
 진해Y '아금바리꾼'과 함께하는 리폼공부
 평택Y 우쿨렐레 강사과정,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20

대구Y 청소년 금융교육-세살버터 여든까지!
 토요학교 강사·지도자 연구모임
 마산Y 국제결혼 행복 프로그램
 부산Y 제13기 어린이환경기X인 입학식
 서귀포Y 방과후 아카데미 비전스쿨
 서울Y 대학Y협의회
 속초Y 부부의 날-부부 산책길
 순천Y 청소년 문화존 '러브 페스티벌'
 안산Y 회원 산행
 여수Y Y-틴 봉사활동, 사랑더하기 나눔의 희망 멘토링
 사랑의 우체국-상반기 정기평가회
 창원Y 부부의 날 기념행사

21

연합회 제3차 YWCA 정의포럼
 광주Y 저출산 극복 실천대회-광주 CEO 2차 포럼
 대구Y 자활인 한마당, EM 교육
 동해Y 찾아가는 취업장구
 서울Y 시민과 함께하는 EM교실
 전문가 초청 부모교육
 속초Y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와 가정폭력예방
 공동캠페인
 진주Y 다문화 주파수를 싸래
 -라디오 DJ와 리포터활동

26

연합회 씽크머니 강사교육-다문화과정
 대구Y 달서구 청소년쉼터 테마여행
 마산Y 씽크머니 교육
 서귀포Y 가사부담완화사업 아빠 요리교실-2차
 서울Y 금요일에 10주년 행사
 속초Y 세계인의 날 행사
 원주Y 성폭력 예방 인형극-한아름 유치원
 의정부Y 지구시민 활동가 교육
 진주Y 씽크머니 데어-도동초
 진해Y '아금바리꾼'과 함께하는 리폼공부

27

고양Y 청소년 난쟁축제
 대전Y 대전시장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책제안 간담회
 마산Y 함포중학교 다문화축제
 부산Y 어린이캠프-초록밭에서의 봄알츠
 수원Y 초등 놀토 프로그램
 순천Y 효산고와 함께하는 멘토링
 안산Y 주말버스학교3기-영어마을체험
 원주Y 체험현경교육-애들이 숲에서 놀자!
 부모자녀 오감만족 프로젝트
 진주Y Y-틴과 '진주탈춤 한마당'
 창원Y 그린패밀리 현장학습

28

한국YWCA 창립 89주년 감사예배와 축하잔치



(사)한국YWCA연합회는 4월 20일 창립 89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렸다. 명예연합위원, 전·현직 실행위원과 위원, 실무자 등 총 90여 명이 함께 감사와 축하를 나누는 자리였다. 창립일이 고난주간에 있어 축하잔치는 4월 26일에 서울YWCA 강당에서 전·현직 지도자, 미래지도력과 회원Y 회장단 등 총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자세한 소식은 p. 14~17 참조).

제15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 시상식



4월 20일 창립일을 기념해 열린 시상식에서 MBC의 설특집 '세시봉 콘서트'가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처음으로 청년 부문이 신설되어 OBS의 '총각엄마와 7형제의 대한민국 전국여행'이 첫 번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자세한 내용은 p. 20~21 참조).

4월 월례아침기도회

4월 1일 연합회 강당에서 열린 월례아침 기도회에서는 강교자 연합회 회장이 '정의는 책임이며 사명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다. 전국의 회원YWCA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YWCA를 영적으로 새롭게 깨우는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p. 13 참조).

제2차 YWCA 정의포럼 -돌봄 노동의 사회화



지난 3월에 이어 4월 28일 연합회 강당에서 제2차 YWCA 정의포럼이 열렸다.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주제로 여성경제정의운동을 다룬 이번 포럼에서는 '여성노동권과 복지(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복지 관점에서 본 여성 돌봄 노동의 사회화(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에 관한 발제로 시작해 회원YWCA 돌봄 노동 관련 실무자들의 질의응답과 실제 현장에서 펼칠 운동의 방식을 모색해보는 워크숍으로 마무리되었다. YWCA 정의포럼은 아프리카TV를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어 지역 회원YWCA도 인터넷과 전화연결을 통해 토론에 참여하였다(자세한 내용 p. 18~19 참조).

일본지진피해 돕기 모금 물품 전달

일본의 대지진 직후 한국YWCA가 전개한 일본 센다이·후쿠시마YWCA 돕기 1차 모금이 마감되었다. 연합회와 총 44개 회원YWCA와 일반시민들이 거리 모금과 해피빈 기부 등을 통해 모금에 참여하였다. 후원금으로 준비한 생수와 라면(삼양용기컵라면 43,200개, 강원심총수 21,600병)은 4월 19일 부산항을 출발하여 26일 일본YWCA에 전달되었다. 일본Y는 유치원과 피해가 심한 지역부터 구호품을 보내고 있으며 한국Y를 통해 일본으로 전달된 수많은 사랑과 나눔의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했다.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성명서 전달

지난 3월 30일 일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삭제되었으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과 함께 전쟁 책임을 은폐하는 내용 등 역사 왜곡이 심각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통과를 발표함에 따라 한국YWCA는 일본과 한국 정부에 각각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전쟁 범죄로 인해 고통 받았던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상처를 가하고 과거 역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면서 4월 12일 일본YWCA를 통해 일본정부에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또한 일본의 독도와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에 대한 철저하고 강경한 외교정책을 세워 대응할 것과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을 적극 실천할 것을 촉

구하는 성명서를 우리 외교통상부에 전달하였다(자세한 내용 p. 43 참조).

한국YWCA-농협 환경살리기 운동 전개·EM 기계 증정식



한국YWCA와 농협중앙회는 4월 14일 환경살리기 운동을 함께 펼치고자 MOU를 체결하고 EM을 발효할 기계 네 대를 증정받아 서울Y와 안동Y에 각각 전달하였다. YWCA가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EM을 활용한 토질개선과 하천정화 등 환경살리기 운동은 특히 구제역 이후 매몰지 약취제거와 침출수로 인한 오염 방지활동 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한국YWCA연합회 임시총회

연합회는 지난 4월 26일 연합회와 회원Y 대표 58명이 참석해 임시총회를 갖고 정관 개정안과 명예연합위원 추대의 건을 의결하였다. 이를 통해 정회경 전 후원회 이사장이 명예연합위원으로 추대되었다.

전국 회장단 연수



42개 회원Y 회장단 80명과 연합회 회장단이 4월 26일부터 2박 3일 동안 버들캠 프장에서 회장단 연수를 가졌다. 2011년 YWCA 운동과 행정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연합회 회장단의 그룹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회원증모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최영우 도움과 나눔 대표가 강의를 하였다. 또한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YWCA 여성경제정의운동의 과제로 새로운 돌봄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김양희 센터앤리더십 대표는 지역운동을 위한 여성리더십의 과제에 대해 강의하였다. 연수를 통해 YWCA 운동 기반을 공유하고 회장단의 역할을 이해하고 YWCA 운영을 위한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민들레넷 실무자 보수교육

4월 6일 27개 회원YWCA 민들레넷 운영 실무자 총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들레넷 보수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은 시스템 활용을 위한 기본 사용법, 보완된 추가 기능 사용법에 대한 강의와 회원YWCA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었다. 참석자 모두는 현장에서 민들레넷을 직접 활용하고 있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지역아동센터 교사 연수



지역아동센터 교사역량강화 연수 '희망을 찾아 한걸음 여행'이 4월 7일부터 9일까지 제주와 서귀포에서 진행되었다. 지역아동센터 교사와 센터장 34명을 비롯해 총 45명이 참가하였으며 아동의 복지와 돌봄을 위하여 헌신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에게 리더십 훈련을 통한 역량강화 및 심과 재충전을 통한 회복의 기회가 되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를 구심점으로 한 지역 네트워킹을 만들고자 임파워링 코칭 강의(한국리더십센터 제주교육원 장소영 전문위원)와 프로포절 기획과 워크숍(한국여성재단 배분팀 명진숙 팀장), 마음열기(서귀포YWCA 청소년 문화의 집 강하자 관장), 조별 네트워킹의 시간을 갖고, '자연과 사람 그리고 생명'이라는 주제로 올레길 전문 해설가와 함께 올레길 탐방의 시간을 가졌다.

씽크머니 씨티 강사교육



씽크머니 금융강사교육 씨티은행 기초과정인 4월 13일 하루 일정으로 연합회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씨티은행 임직원 26명이 전국에서 진행 중인 씽크머니 프로그램의 금융교육 강사로서 활동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연합회 실행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은경 세종리더십센터 원장의 '성공적인 강의와 강사의 자질', 경제교육연구소 최학용 대표의 '강의안 작성법'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워크숍을 통해 실습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과정을 수료한 강사들은 주로 씽크머니 특강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2차~3차 1단계 실무자교육



4월 19일부터 2박 3일간 Y아카데미 서부 지역센터가 주관한 2차 실무자교육이 서부와 동부지역 3년 미만 신입 실무자 34명을 대상으로 광주YWCA와 까리따스교육관에서 열렸다. 3차 교육은 경기지역센

터가 주관해 성베네딕토 피정의 집에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경기와 북부, 동부지역 신입 실무자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YWCA 운동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비전을 공유하며 참가자에게 Y실무자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 강의를 진행하였다. 영성훈련을 통해 Y운동 근간을 이해하며 본부와 부속시설 간의 이해를 돕고 실무자간의 연대를 꾀하였다. 특히 3차 교육은 연합회에서 진행된 제2차 정의포럼을 인터넷 생중계로 함께 시청하고, 전화연결을 통한 질의응답 등을 통해 돌봄노동의 사회화라는 주제에 대해 다함께 토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동정

- ◎ 정희경 전 (사)한국YWCA연합회 후원회 이사장이 4월 26일 임시총회에서 연합회 명예연합위원으로 추대되었다.
- ◎ 신희운 연합회 부회장이 4월 19일 북한 돕기 기금으로 2천5백만 원을 쾌척하였다.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한국YWCA 성명서

지난 3월 30일 일본은 역사 왜곡이 심각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통과를 발표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새 교과서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삭제되었으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과 함께 전쟁 책임을 은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전쟁 범죄로 인해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상처를 가하고 과거 역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해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여 일본 칸 나오토 총리는 역사를 직시할 용기와 이를 인정하는 겸허함을 가지고 과오를 되돌아보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으며, 이번 검정 교과서 통과 이후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닌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실하게 선언한다는 내용을 4월 1일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우리는 일본 총리의 발언이 현재 들끓고 있는 한국 내 일본에 대한 실망과 반감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적 방편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실천이 될 것인지를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 세대가 화합하기 위해, 과거 전쟁 침략의 과오를 후세대에 명확히 전달하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한국YWCA는 지난 10여 년 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시정을 촉구하는 운동을 진행해왔으며, 일본YWCA는 운동의 협력 파트너로서 올바른 역사 교육과 동아시아 평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왔다. 한국YWCA는 한일 양국 차세대들이 공동된 역사 인식을 갖고 우호적인 신뢰 관계를 형성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역사를 왜곡하고 국가 간 영토 분쟁을 부추기며 미래의 평화를 위협하는 교과서가 일본 학교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본정부는 전쟁 범죄를 미화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전면 중단하라.
-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철저히 반성하고 피해여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적극 보상하라.
- 일본정부는 전쟁 침략 반성과 미래 동아시아 평화 교육을 교과 과정에서 실시하라.
- 일본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고 모든 외교 문서에서 삭제하라.

2011년 4월 12일
한국YWCA연합회

고양 YWCA

●이혜경 간사

신임사무총장 취임예배

4월 15일 하나로YWCA문화센터에서 이사와 직원, 내빈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YWCA 제7대 송미령 사무총장 취임예배를 가졌다. 취임사에서 하나님 뜻을 앞서가지 않도록 할 것과 사람을 품고 세울 것, 열린 마음으로 자원지도자와 실무자 그리고 고양시와 사회적 약자들과 소통하는 고양YWCA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사·위원 연구모임

40여 명의 자원지도자와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4월 28일 'YWCA 지도자 되기'라는 주제로 2011년 이사·위원 연구모임을 가졌다. 의식 있는 지도자를 위한 '이 마을에서 세상 바꾸기'에 대해 이영희 광명YMCA 사무총장이, 리더십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한 원활한 회의 진행법과 회의록 작성에 대해 김숙희 서울YWCA 증경회장이 강의를 하였으며 'EM 천연스킨 만들기'로 환경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지도자가 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 4월 30일 제14회 해오름잔치-장애·비장애 아동과 백마부대 군인이 함께하는 놀이체험마당

남양주 YWCA

●임은희 간사

미술치료 2급 양성과정

4월 28일부터 매주 목요일, 상담의 기본적 단계인 미술치료 2급 과정을 통해 내면의 심리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상담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상담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 4월 12일 조손가정 반찬 나누기(매주 화)

- 4월 20일 아나바다 나눔장터
- 4월 26일 백합회 आयु회

수원 YWCA

●이민정 간사

Y-틴 인준식

수원YWCA Y-틴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16일 삼일상업고등학교 강당에서 Y-틴 인준식이 있었다. 1부 예배, 2부 인준식, 3부 골든벨 순으로 진행됐으며 학교 Y-틴 14곳과 센터 Y-틴 2곳, 총 16개의 Y-틴이 인준을 받았고 Y-틴 담당교사 14명과 청소년지도자 15명이 임명장을 받았다. 2011년에도 수원YWCA Y-틴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 4월 4일 가족사랑 멘토링 학습지도활동-조원동 지역아동센터
- 4월 6일 울천고 환경교육
- 4월 7일 대안생리대 제작모임, 소비자 모니터 심화교육
- 4월 7일~8일 상반기 이사연수-변산반도
- 4월 9일 Y-틴협의회, 청소년지도자모임, 간병인 월례회
- 4월 20일 알음알음 나눔장터, EM 지도자 교육, 소방교육
- 4월 21일 결혼이민여성 생활법률강좌
- 4월 27일 인문학 강좌-나는 혁신학교에 간다
- 4월 28일 푸른흙씨 모임

안산 YWCA

●문성은 간사

안산주말버스학교 및 희망날개달기사업

안산YWCA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과 안산주말버스학교사업 및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희망날개달기에 대한 협약식을 갖고 지난 4월 23일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안산주말버스학교는 120명의 초등학생이 대부도를 찾아 갯벌체험을 하였고, 앞으로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놀토에 체험학습을 진행한다. 희망날개달기사업은 '신나는 교과서 밖 과학여행!'이라는 주제로 40명의 초등학생이 식물원을 찾아 야생화 관찰과 화분 만들기 체험을 하였으며, 올해 11월까지 총 8회의 자연과학 체험학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 4월 20일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6월 1일)
- 4월 21일 이사·위원 훈련
 그린실천단 양성교육-환경건강매니저 3기(~6월 3일)

안양 YWCA ●조미영 간사

안양YWCA 큰 장날

가정폭력 피해여성 쉼터 공간 확장을 위한 안양YWCA 큰 장날이 4월 13일부터 이틀 동안 여성회관 앞마당에서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아나바다장터, 먹거리와 EM 등 다양한 물품이 판매되었다. 또한 장터 중앙에서는 EM 부스를 설치하여 장터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EM 홍보와 체험교육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 4월 9일 Y-틴 인준식

의정부 YWCA ●윤소영 간사

YWCA 지구시민 강사양성교육-나는 지구시민이다!

의정부YWCA에서는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지구시민 강사양성교육을 진행하였다. 결혼이민여성을 포함한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문화시대에 살고 있는 한국시민이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이해하고 차별하지 않으며 지구촌 시민의식을 갖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이 진행되었다.

- 4월 1일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품앗이 공동체 교육(~29일)
- 4월 12일 씩크머니 경제금융교육 협약식-가능초
- 4월 13일 이사·위원 연구모임
- 4월 14일 경기북부 아이돌보미 담당자 간담회
- 4월 18일 살림돌보미 1차 양성교육 개강

파주 YWCA ●이정심 간사

파주Y 산모·신생아 돌보미 표창

2011년 제39회 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지역보건향상에 공을 세운 유공자를 격려하고, 포상을 통한 건강증진의식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파주시 시상식에 파주YWCA 소속 산모·신생아 돌보미 2명(김명자, 채경애)이 수상자로 선정되어 표창장을 받았다. 타 업체 소속 돌보미들과 차별화된 모습의 파주YWCA 소속 산모·신생아 돌보미들의 헌신적 봉사를 높이 치하하며 감사하는 자리였다.

- 4월 11일 생활도에 교실 개강, 흠패션 교실 개강
- 4월 23일 넵킨아트 교실 개강

평택 YWCA ●남예슬 간사

부활란 나누기

평택YWCA는 4월 20일 이사들과 함께 평택지역의 시민단체와 협력 학교인 송일초등학교와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부활란을 나누었다.



경주 YWCA ●김효영 간사

1인 다기능 직업교육 수료식

경주YWCA는 지난 3월 22일부터 실시된 2011년 첫 번째 1인 다기능 직업교육이 4월 13일로 끝남에 따라 수강생들의 수료식을 가졌다. 간병, 산모·신생아, 베이비시터, 가정관리, 이미지 메이킹 수업을 통해 일자리에 필요한 지식을 배웠으며 EM 교육도 함께 진행되었다.

- 4월 2일 소년소녀합창단 40기 오리엔테이션
- 4월 14일 제38회 정기총회

김해 YWCA

●배정숙 간사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훈련 개강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3개 과정이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자연생태아동지도사, 실버인형극지도사, 가야문화탐방지도사 과정이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며 수료 후 유관 기업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자연과 문화, 예술 분야 과정이 선정되어 여가생활의 증대에 따른 문화적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Y-틴 인준식

지난 4월 9일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 강당에서 김해YWCA Y-틴 인준식이 개최되었다. 김해YWCA 임해옥 회장 및 청소년부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석과 관심으로 진행된 이번 인준식은 김해가야고 3년 박희선 Y-틴 회원과, 김해제일고 1년 송유준 회원이 각각 회장과 총무로 임명되고, 인준식 이후 특별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EM 흙공 만들기를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 4월 8일 다문화가정 꽃꽂이 강좌
- 4월 12일 어린이 영어교육 전문가 영어교육예술사과정 설명회
- 4월 18일 전문 산모도우미 교육(~29일)
- 4월 23일 청소년 EM 환경교육1
- 4월 28일 자기주도적인 삶을 위한 행복특강1

대구 YWCA

●김세형 간사

‘달서행복나눔가게’ 개소식

4월 29일 문을 연 ‘달서행복나눔가게’는 새 옷, 헌옷, 중고물품 등을 받아서 지역주민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개소식 당일, 달서구청장 외 지역주민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집한 다양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부스와 용산1동 새마을부녀회와 연계하여 간식을 판매하는 부스가 함께 운영되었다. 지역주민의 참여로 운영되는 ‘달서행복나눔가게’를 통해 대구달서지역자활센터를 알리고 자활생산품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함과 동시에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대구사랑나눔장터 개장

아나바다 운동을 생활에서 실천하고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는 나눔의 장소인 대구사랑나눔장터가 지난 4월 1일 개장되어 매주 금요일 열린다.

EM 흙공으로 깨끗한 신천 만들기

대구YWCA는 4월 7일 이사·위원·회원 40여 명이 모여 EM 흙공을 만들었다. 수질개선 및 악취제거에 큰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4월 21일 대구 신천에 EM 흙공을 던져 깨끗한 신천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새일센터 일·가정양립지원사업: 밑반찬 지원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기혼여성의 가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일센터 일·가정양립지원사업으로 밑반찬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이번 사업은, 본 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였거나 취업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혼여성이 대상이다. 한 가정당 4주간 4종류의 반찬을 지원하며, 만족도가 높다.

달서구청소년쉼터 음악치료

드럼을 통해 리듬과 박자를 익히고 내부의 억눌렸던 감정을 외부로 표출함으로써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가지게 되며 자존감과 만족감을 향상시켜 새로운 문화 활동에 도전하게 하는 음악치료가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

- 4월 4일 커피전문점 창업 가이드
- 4월 8일 자활근로 사업단 공동체 훈련-팔공산

마산 YWCA

●이애라 간사

청소년 금융교육 씽크머니

2009년에 이어 올해 씽크머니를 진행하는 삼계초등학교와 4월 4일 협약식을 시작으로 1년간의 일정이 시작되었다. 4월 7일에는 선생님을 대상으로 울산YWCA 이경미 이사가 씽크머니 교재활용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4월 14일에는 6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은경 강사가 자녀용돈교육의 중요성을 강의하였다. 용돈에 대한 오해

와 고정관념이 많이 해소되었다는 학부모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부산 YWCA

여진경 간사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제5회 장애인 걷기+등반대회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은 제5회 장애인 걷기와 등반대회를 국민은행 직원들과 함께하였다. 총 5개 코스로 코스마다 쉬어가면서 조 구성원이 협력하여 미션을 무사히 수행했다. 회동 수원지의 싱그러운 풍경과 함께 작은 음악회가 이뤄져 운치 있는 걷기대회가 되었다.

어린이 농촌 체험캠프

4월 23일부터 1박 2일로 산청황매산청소년야영장에 초등학생 60여 명과 함께 '농촌 친환경 한 해살이 체험' 1차 봄맛이를 다녀왔다. 생명의 현장인 유정란 농장 견학을 통해 유정란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짬으로 달걀 꾸러미를 만드는 체험도 했다.

- 4월 9일 어르신 일일 나들이
- 4월 15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단체 1차 전문연수
- 4월 19일 나들이클럽 문화기행
- 4월 23일 부산YWCA 어린이캠프

사천 YWCA

정정자 간사

사천시주민복지박람회 EM 부스 운영

4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사천시주민복지박람회에서 사천 YWCA는 3개의 부스를 운영하면서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토양과 수질개선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담아 흙공을 만들었고, EM 활성액을 이용한 친환경제품을 판매하면서 푸른 사천 가꾸기도 홍보하였다. 다양한 체험과 홍보 리플릿을 통해 지역 시민을 향한 온정의 손길이 곁에 있음을 알리고 확인하는 자리였다.

- 4월 23일 꿈샘지역아동센터, 실종유괴 예방교육
- 4월 28일 다문화가정 희망나눔 1:1 멘토링 결연식
- 4월 29일 가정폭력예방 캠페인 및 이동상담실 운영

안동 YWCA

강주영 간사

자원봉사자 친환경교육

문경YMCA의 자원봉사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안동YWCA는 4월 4일 친환경교육을 실시하였다. EM을 통한 생활제 만들기과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은 천연 비누 만들기, 환경수세미 만들기 교육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환경지킴이가 되기로 다짐하였다.

구제역 매몰지 EM 투여

안동YWCA는 4월 22일 안동시 지역의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농가를 방문하여 EM을 투입하였다. 안동대와 안동시의 협력으로 지역의 농가 중 6곳을 선정하여 1개월에 2회 무상으로 EM을 꾸준히 투입하여 살처분으로 오염된 토양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 4월 12일 '재래시장 장보기' 등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 참여

양산 YWCA

이은주 간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소식

4월 12일 양산YWCA에서 각계 인사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양산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을 비롯해 취업희망 여성의 직업상담, 교육훈련, 취업 후 관리 등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취업전문기관으로서 양산지역 여성들에게 여성과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취업 뿐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힘찬 일꾼이 될 것이다.

- 4월 4일 제3기 집단상담교육(~8일)
- 4월 12일 민들레 동요학교 양산새일센터 개소식 축하공연
- 4월 18일 전문돌보미 양성 직업교육 개강(~5월 31일)

울산 YWCA

김선양 간사

Y-틴 청소년 미디어 봉사단 '암니옴니' 동아리 조직

울산YWCA 청소년대학위원회는 청소년이 분별 있게 대중매체의 정보를 수용하고 활용하기 위한 Y-틴 동아리 '암니오니'를 만들고 4월 9일 첫 모임을 가졌다. 특히 인터넷공간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문화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영상제작 홍보활동을 통해 이들의 재능을 개발하고 전문봉사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Y '애슬' 신입생 환영회

대학봉사동아리 '애슬'은 2011년 새내기 신입생 20명을 맞아 환영회를 열었다. '애슬'은 금융경제관련 교육봉사활동을 주축으로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현재 청소년 금융경제교육을 위한 자체 스튜디오와 전문강사의 교육을 받고 있다.

EM 발효액 축산농가에 전달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4월 7일에 만든 EM 발효액 50말 통과 EM 홍보물을 울산 두동의 은편교회를 통하여 축산농가에 전달하였다.

진주 YWCA

● 최예진 간사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교육·선포식

4월 13일 진주Y 강의실에서 '사랑이 꽃피는 청소년 세상 만들기'를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교육과 선포식을 하였다. '청소년의 정의,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주제의 교육이 이뤄졌다. 선포식을 통해 1년 동안 스티커 설문조사, 청유감 퀴즈대회, 체험활동 등을 부대행사로 하는 캠페인활동과 술·담배 판매업소 협약활동과 지도·계몽활동, 평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4월 6일 노인대학 어르신과 함께하는 거리질서 캠페인
- 4월 12일 씩크머니 현판식-도동초
- 4월 15일 어린이집 악물오남용, 교통안전 교육
- 4월 16일 청소년 문화존 진주Y Y-틴 동아리 '날개' 홍보부스 운영
- 4월 21일 동부지역 EM 흙공 던지기-김해 영강사
- 4월 22일 EM 환경캠페인
- 4월 26일 대학Y 동아리 '꾸미망' 토론회
- 4월 27일 결혼이민여성 봄 소풍

진해 YWCA

● 조혜원 간사

Y맘과 함께하는 놀이세상

진해YWCA는 4월 22일 부산 해운대 아쿠아리움으로 한하늘 한땅 캠페인-'Y맘과 함께하는 놀이세상'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번 나들이는 사업을 마치면서 베이비시터들과 결혼이민여성들이 더욱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행복한 아침밥상 캠페인

바쁜 일정으로 아침식사를 거르기 쉬운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하여, 4월 29일 진해중고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우리 쌀로 만든 주먹밥과 우유를 나눠주며 행복한 아침밥상 캠페인-'애들아 밥 먹자'를 진행했다.

- 4월 중 결혼이민여성 정착 멘토링 조별 자조모임

창원 YWCA

● 황은진 간사

애들아 밥 먹자 캠페인

4월 28일 창원YWCA와 경남농협은 창원명지여고 1,500명 학생을 대상으로 '애들아 밥 먹자' 캠페인을 가졌다. 20여 명의 창원YWCA 임직원들이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나누며, 이른 등교와 늦잠으로 아침밥을 쉽게 거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습관의 중요성과 건강한 먹을거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 4월 12일 산도돌보미 월례회
- 4월 16일 아시아미술제 아트마켓 부스 참여(~17일)
- 4월 29일 회원특강-리본카네이션 만들기

통영 YWCA

● 임정순 부장

명예경찰 발대식

지난 3월 30일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주축으로 한 '명예경찰 발대식'

에서 중국,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몽골, 인도네시아 등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이주여성 10여 명과, 통영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들, 그리고 그간 다문화가정 여성의 친정 역할을 해온 통영YWCA 사무총장과 간사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통영Y는 2010년 5월, 외국인 도움센터를 개소하여 이주여성과 이주근로자의 정착을 돕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명예경찰단은, YWCA 한글학교를 통해 중급 이상의 한국어 실력을 쌓고 각종 외국인 분쟁에서 통역사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들 중 모범적인 다문화가정을 꾸려가는 주부들을 선발해 구성한 팀이다.

- 4월 19일 일본 지진 피해 돕기 모금행사
- 4월 22일 지구의 날 행사-EM·아나바다 부스 운영



강릉 YWCA ●전정미 간사

회원발대식

강릉YWCA 회원 발대식이 4월 11일 열려 연합회 박은실 국장과 함께 왜 운동을 해야 하는지, 회원운동기간을 통해 나의 자람의 목표를 정하고, 나의 자리는 어디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Y-키즈클럽 기차봉사여행

강릉YWCA 어린이Y회원인 Y-클럽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사랑 나누기'를 하기 위해 기차에 몸을 싣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여행을 떠났다. 정동진 앞바다에서 해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쓰레기도 줍고 레크리에이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YWCA의 젊은 회원들과 관계 맺기라는 첫걸음이 되어 어린 자녀를 둔 3040 활동회원의 참여가 활발해지리라 기대한다.

- 4월 5일 신입 이사·위원 교육(~6일)

- 4월 8일 교도소 생일잔치
- 4월 11일 살림돌보미 보수교육
- 4월 25일 다문화가정 후원 프로그램

동해 YWCA ●송원진 간사

다문화 한글배움터

동해YWCA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6세 미만의 학령 전 다문화아동을 대상으로 발달단계에 맞는 언어학습을 실시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자존감을 증대시키며 자녀의 학습 능력과 사회 적응을 도울 뿐 아니라 마을단위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4월 11일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 4월 13일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15일)
- 4월 23일 키즈앳맘 '행복한 동행'

서울 YWCA ●박서영 간사

냉장고봉사단 홍보대사 위촉식

4월 14일 서울YWCA 냉장고봉사단 홍보대사로 배우 김형자 씨와 성우 배한성 씨가 위촉되었다. 냉장고봉사단은 2010년 10월에 발족되어 독거 어르신들을 방문하여 냉장고 정리 등 살림 정리, 말벗을 해드림으로써 정서적 지원과 봉사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냉장고봉사단은 서울YWCA 여성능력개발부에 소속되어 생활도우미로 일하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2~3명이 한 조가 되어 결연을 맺은 14명의 독거어르신 댁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활동하고 있다.

- 4월 8일 가락복지관, 행복한 나눔가게 바자회
- 4월 12일 사회복지 기금 마련 바자회(~13회)
- 4월 16일 Y-틴·대학Y 연합 인준식

속초 YWCA ●김현희 간사

이사·실무자 교육

속초YWCA는 다솜아동센터에서 이사와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차경애 연합회 부회장의 YWCA 여성운동 및 자원 지도자의 역할 강의와 김미영 EM 전문강사의 교육으로 진행되어 EM 스크립을 만들어 보는 등 생활 속 실천운동방법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 4월 5일 결혼이민자 건강증진교육
- 4월 12일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사업설명회와 학부모 간담회
- 4월 22일 독거노인 밀반찬 나눔 봉사
- 4월 26일 어르신 소비자 교육

원주 YWCA

●곽예진 간사

일본 지진 피해 돕기 라면 출하 동행

4월 16일 원주YWCA는 전국 회원YWCA에서 정성을 모은 일본 돕기 기금으로 준비한 라면을 출하하는 모습을 보며 일본에 꼭 필요한 것을 한국YWCA에서 준비하여 보낸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 4월 1일 씩크머니 경제교육-복원여중
- 4월 2일 사랑의 우체국 발대식
- 4월 16일 원주시 청소년 문화존 '끼의 난장' 1차 댄스가요제
- 4월 20일 씩크머니 경제교육-신림중
- 4월 23일 체험환경교육-환경지킴이 발대식

인천 YWCA

●김주희 간사

자원순환 녹색나눔장터 개장식

4월 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가 열렸다. 이날은 4,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 공연과 가래떡 나눔으로 많은 시민들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 4월 2일 돌봄과살림 가족 आय회
- 4월 12일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 4월 16일 Y-틴 인준식, 청소년 문화존-부평 문화의 거리

- 4월 23일 나눔장터-가방 아나바다

춘천 YWCA

●황재옥 간사

아동돌보미 교육

춘천YWCA는 4월 4일부터 아동돌보미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10일 40시간 과정으로 총 14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이론에서 실기까지 전문 강사를 통한 교육으로 수료 후YWCA 전문 돌보미로 등록되어 춘천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파견될 예정이다.

서부
지역

광양 YWCA

●박동순 간사

성희롱·성매매 예방 교육

광양여성상담센터는 4월 18일 광양초등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성희롱의 범주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초등학생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성문화와 교육방향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광주 YWCA

●손유영 간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광주YWCA와 광주여성희망포럼 NGO분과위원회에서는 4월 12일 김경신 여성희망포럼공동위원장과 정현애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민석 박사(전남발전연구원)의 주제발표와 토론회를 통해

여성친화도시의 의미를 새기고 광주가 고유성을 갖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사·위원 연수

4월 8일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진행된 이사·위원 연수에는 직원까지 모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교자 연합회 회장의 영성훈련과 '1인 1운동 갖기' 워크숍을 통해 Y인으로서의 마음과 자세를 바로잡는 시간을 가졌다.

- 4월 4일 고려자인재은행, 취업향상 프로그램(~29일)
- 4월 6일 사회적기업 프로보노 발대식
- 4월 16일 Y-틴 협의회와 지도자 월례회
- 4월 21일 소비환경감시활동-오픈 프라이스 제도 교육
- 4월 23일 청소년 문화존 선포식
- 4월 29일 청년·대학Y 인준식과 환영회

군산 YWCA

●박승이 간사

군산Y여성인력개발센터 강사 위촉식과 간담회

군산YWCA는 4월 6일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2011년 강사위촉식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강사별로 위촉장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통해 올해 진행할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 4월 13일 어린이집 수목원 방문
- 4월 20일 신임 실무자 연수
- 4월 23일 어린이집 성 박물관 견학
- 4월 30일 부설평화중고 현장학습

남원 YWCA

●조윤희 간사

부활절 차 나눔 봉사

남원YWCA는 4월 24일 사랑의 광장에서 부활절 차 나눔 봉사를 진행하였다. 남원YWCA 이사·직원과 회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이번 차 나눔은 이른 새벽부터 각자 준비해온 따뜻한 차를 예배를 드리러 온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였다.

- 4월 5일 가정방문 영어강사 직업기초능력 교육, 요가교실(~28일)
- 4월 11일 산모돌보미 '아기사랑' 민들레모임

목포 YWCA

●정현정 간사

대학Y·Y-틴 인준식

목포YWCA는 4월 23일 목포정명여고 강당에서 총 2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1년 대학Y와 Y-틴 인준식을 가졌다.

목포Y 창립 64주년 기념예배

4월 30일 목포YWCA 강당에서 창립 64주년 기념예배를 가졌으며, YWCA 회원 실천운동을 다짐하는 발대식을 가져, 자기 컵과 손수건 쓰기 운동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 4월 8일 전남 산모도우미 어울림대회
- 4월 28일 어린이집 소풍

서귀포 YWCA

●김지희 간사

여성친화기업문화 확산과 취업지원을 위한 기업 릴레이 협약식

서귀포YWCA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4월 26일 여성친화기업문화 확산 및 여성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77개 기업 릴레이 협약식을 가졌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업무에 공동으로 힘을 모으게 되었다. 서귀포Y새일센터는 협약을 체결한 기업체에 여성 편의시설을 늘리기 위한 물품 지원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웃음치료, 직업의식 교육 등의 근로자 교육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순천 YWCA

●김아라 간사

멘토링 '꿈모리'

순천 효산고등학교와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인 '꿈모리(꿈을 물

고 가는 이들'가 총 30명이 모인 가운데 효산고등학교 복지실에서 열렸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멘토와 멘티가 11명씩, 총 22명이 2011년 결연을 맺고 활동하게 되었다.

야간 비영업장 조명 사용 실태조사

에너지시민연대 사업의 일환으로 순천YWCA는 야간에 문을 닫는 매장의 조명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00여 군데의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109개의 업소가 영업이 끝난 후에도 일부 조명과 간판을 끄지 않고 업무를 종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틴·대학Y 인준식

지난 4월 16일 순천YWCA Y-틴과 대학Y 인준식이 열려 총 4개 클럽 8명이 모였다. 이날 YWCA 교육, 목적문 외우기 대회 및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되었으며, 2011년 Y-틴과 대학Y 회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여수 YWCA

●이경진 간사

늘푸른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연합체육대회

4월 9일 전남협의회 연합체육대회가 청소년 31명, 지도자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흥심천공원에서 열렸다. 이날은 전남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2개 기관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육대회를 비롯 공동체활동을 진행하여 서로간의 교류와 소통을 하는 시간이었다.

민방위 훈련생 대상 성매매 예방교육

여성인권지원센터는 4월 9일 민방위 훈련생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성매매의 착취구조(영상물), 성매매에 처한 상황과 여성들의 심리,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인권 등으로 이루어졌다. 4월 중 모두 3회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 4월 6일 여성인권지원센터, 자원봉사자 월례회

익산 YWCA

●최유정 간사

- 4월 2일 익산기독교연대 일본 대지진 피해 돕기

공동기도회·모금활동

- 4월 14일 익산기독교 사회복지협의회 창립총회

전주 YWCA

●김은진 간사

중소상인 살리기 집중 캠페인

전주YWCA는 4월 1일부터 3일 동안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함께 대형마트 10시 폐점 및 월 3일 휴업 실시를 위한 집중 시민행동에 나섰다. 공대위는 1일 전주 서신동 이마트에서 오후 3시부터 동전 장보기 집중행사를 진행하고, 전주 시내 동네 슈퍼와 재래시장이 공동할인 행사를 시작했다.

여성리더십 양성과정-건강한 삶의 영향력!

4월 28일 자기 개발에 관심 있는 여성 50명을 대상으로 '여성리더십 양성과정'을 열었다. 앞으로 5주 동안 자기발견 및 이해, 갈등관리, 인간관계기술 등의 강좌를 통해 21세기형 리더십을 제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고자 한다.

- 4월 2일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 운영
- 4월 4일 신임이사 지도력 훈련
- 4월 7일 찾아가는 진로의 날
- 4월 9일 청소년 봉사단 '도로시' 효사랑병원 봉사활동

제주 YWCA

●강지혜 간사

제주생태관광매니저 일자리협력망회의

제주YWCA여성인력개발센터는 4월 8일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의 효율적인 진행과 함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협력망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인 '제주생태관광매니저' 교육과정 내실화, 취업 연계 등의 논의와 의견수렴이 있었다.

어린이집 텃밭 체험

제주Y어린이집은 지난 4월 12일 어린이집 텃밭에서 5~7세 유아들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봄의 식물이 변화하는 과정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봄에 심어서 싹이 트는 식물과,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씨앗을 직접 심어보는 체험활동을 하였다.



논산 YWCA

● 김화선 간사

가족과 함께하는 지구를 살리는 착한미생물 EM 특강

논산YWCA는 4월 9일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문화팀 40여 명과 함께 EM제품 만들기 실습을 진행하였다. EM의 기초교육과 가정을 비롯 분야별 활용법, 쌀뜨물 발효액과 EM천연방향제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참여자 대부분이 EM에 대해 새로운 정보와 인식을 갖게 되었다. 특히 가사를 도맡아 하는 주부들에게 EM의 반응이 뜨거웠다.

- 4월 12일 이사·위원 연수
- 4월 23일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일일통일체험학습
청소년 금융교육 씽크머니 멘토링 교육 Big Sis & Big Bro

대전 YWCA

● 강은혜 간사

창립 65주년 기념예배와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대전YWCA 창립 65주년을 맞이하여 창립기념예배와 회원증모운동 발대식이 이사·위원·회원 85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대전은 해교회 신현숙 목사의 '저를 기념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으며 직원들의 특별찬양과 노금선 회원(실버랜드 원장)이 축하의 시낭송을 하였다. 예배에 이어 2부에는 오현숙 사무총장의 사회로 차영희 총대장의 인사말과 대전YWCA 오순숙 증경회장이 '그리스도의 군병되어'란 특강으로 회원증모를 독려했다. 올해 회원증모운동은 회원 3,853명, 회비 1억4천5백만 원을 목표로 4월 13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개된다.

목회자부부 초청 간담회

4월 5일 대전지역 9개 교회 목회자부부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전YWCA를 소개하고 EM 발효액 활용법을 나누었으며 교회와 협력하여 EM 발효액을 구제역 매몰지역에 보급하는 YWCA 운동을 함께 펼치는 다짐의 시간이 되었다.

제천 YWCA

● 류인숙 간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애들아, 날아보자' 개강

제천YWCA는 4월 2일 오후 2층 교육실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애들아, 날아보자'라는 프로그램을 개강하였다.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총 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구별도서관의 자원봉사자들과 자원지도자들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올 12월까지 진행되는 지속 사업으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함께 심리사회적 소외감을 극복하여 안정적인 인성발달과 긍정적 학교생활, 어울림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시간이 되도록 진행될 것이다.

충주댐 호니눔복지센터 열린의사회 의료봉사

한국수자원공사와 (사)한국열린의사회가 주최하고 제천YWCA 충주댐 호니눔복지센터(센터장 박영미)가 주관한 사랑나눔 무료의료봉사가 4월 10일 복지센터(매포)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약 35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해 한방, 치과, 내과, 신경외과 검진과 처방을 받았다.

보육센터 봄나들이

제천YWCA 보육센터(제천·덕산)의 거점 및 파견보육 대상 아동 23명과 학부모 9명, 보육사 12명은 4월 8일 에버랜드를 방문하여 즐거운 봄나들이를 하였다.

- 4월 15일 보육센터 솔루션위원회(~16일)
- 4월 25일 요양보호사 26기 개강

조치원 YWCA

● 홍진영 간사



“앰플로 집중 관리 받은 것처럼 눈에 보이게 달라져요”

앰플로 잡티를, 에센스로 피부톤을 아이오페 화이트젠 앰플 에센스

어느 순간부터 다양하게 생기는 화이트닝 고민들- 아이오페는 잡티, 피부톤 등을 한 번에 해결해 줄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고기능의 투명에센스가 칙칙한 피부톤을 밝혀주는 동시에 고농축 앰플(스팟 화이트 캡슐)이 뿌리 깊은 잡티를 집중적으로 개선합니다.



My Favorite Beauty Shop
ARITAUM
www.aritaum.com